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

주체 111 (2022)년 9월 8일

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  
존경하는 상임위원장  
동지, 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동지!  
방청자 여러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의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소  
집된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는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법적무기들을 마련  
하였습니다.

특히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국가핵무력  
정책과 관련한 법령을 채택  
한것은 국가방위수단으로서  
전쟁억제력을 법적으로 가지  
게 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한  
특기할 사변으로 됩니다.  
이로써 국가와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만년대계의  
미래까지도 확고히 담보  
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  
장치가 갖추어지는 또 하나  
의 중대한 역사적위업이  
달성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혁명앞에 조성  
된 현 국면과 정세발전추이  
로 보나 공화국핵무력의 사명  
으로 보나 매우 중대한  
역사적시기에 핵무력정책이  
법화되었다고 인정하면서  
전체 대의원동지들이 가  
장 책임적인 시각에 가장  
적절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준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인민의 대표로서 국  
가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를  
실현하는데 힘과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있는 대의원  
동지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  
은 높은 단계에로 심화될수록  
제국주의의 더 큰  
도전과 반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생존  
수단으로 삼고있는  
제국주의가 존재하는한 전쟁의  
근원은 종식될  
수 없으며 력사발전에서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간의  
대립과 투쟁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즐거워진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어떠한  
침략위협도 통할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는것이 중차대하고  
사활적인 요구로  
나서며 이를 실현하자면  
적들을 압승할수 있는  
절대적힘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공화국은  
반제투쟁의 성세, 사회주의의  
강경보루로서 온갖  
적대세력의 간섭과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의 시간표에  
따라 자위적국방력  
건설을 완강히 추진하여  
미제가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를 끝장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까지 완전 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  
하였습니다.



이번에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공화국정부  
의 자주적결단과 결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  
의지에 대한 더욱  
뚜렷한 과시로  
됩니다.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협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척수단,  
절대병기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과 자위력강화가  
세계평화와 지역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으로 된다는  
알토당토않은  
계변으로 국제무대  
에서 우리 공화국  
정권을 《악마화》  
해놓기 위한  
여론퍼뜨리기에  
집착하면서  
우리를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추종세력까지  
총발동한  
사상최악의  
제재봉쇄와  
정치군사적  
공세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목적은 우리의  
핵 그 자체를  
제거해버리자  
는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렬세하게  
만들어  
우리 정권을  
어느때든  
붕괴시켜버리  
자는것입니다.

미국은  
사상최대의  
제재봉쇄로써  
우리에게  
간고한  
환경을  
조성하고  
진맥이  
나게  
하며  
우리로  
하여  
금 국가의  
안정발전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가  
핵을  
선택한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하고  
당과  
정부에  
대한  
인민들의  
불만

을 유발, 야기시켜  
우리 스스로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  
보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만에!

이것은  
적들의  
오만이고  
오산입니다.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  
보라  
합시다.

지금  
겪고있는  
곤난을  
잠시라도  
면해보자고,  
에둘  
아가자고  
나라의  
생존권과  
국가와  
인민의  
미래의  
안전이  
달린  
자위권을  
포기할  
우리가  
아니며  
그  
어떤  
극난한  
환경에  
처한다  
해도  
미국이  
조성해  
놓은  
조선  
반도의  
정치군사  
적형세하  
에서, 더  
우기  
핵적수  
국인  
미국을  
전망적  
으로  
견제해  
야 할  
우리로서  
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국주의  
자들의  
상투적인  
설교와  
계변과  
제재압박,  
군사적  
위협에  
못이겨  
잘못된  
선택으로  
비참한  
말로를  
걸고  
비극적인  
마감을  
맞은  
20세기,  
21세기의  
수많은  
력사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저  
하나의  
안락을  
찾기  
위해,  
직면한  
오늘의  
고생을  
피하기  
위해  
적들의  
간고한  
설교와  
끈질긴  
압박에  
못이겨  
우리  
공화국  
정권과  
후대들의  
안전  
을  
담보  
하는  
핵을  
대부분  
개선했  
가시  
적인  
경제  
생활  
환경을  
추구  
하지  
않을  
것이며  
천신  
만고  
한대  
도  
우  
리는  
자  
기의  
선택  
을  
바  
꾸  
지  
않  
을  
것  
입니다.

하여  
공화국  
발전  
사에  
가  
장  
위  
대  
하고  
강  
인  
한  
세  
대로  
남  
아야  
합  
니다.

미국은  
절대로,  
절대로  
우리  
국가  
를  
상  
대  
로  
저  
들  
의  
기  
도  
를  
실  
현  
할  
수  
없  
으며  
우  
리  
인  
민  
의  
선  
택  
을  
바  
꿔  
놓  
지  
못  
할  
것  
입  
니  
다.

시간이  
과연  
누  
구  
의  
편  
에  
있  
습  
니  
까.

바  
쁘  
면  
지  
금  
적  
들  
이  
바  
빠  
났  
지  
우  
리  
는  
바  
빠  
들  
것  
이  
하  
나  
도  
없  
으며  
우  
리  
는  
얼  
마  
든  
지  
지  
금  
의  
이  
환  
경  
하  
에  
서  
도  
우  
리  
의  
힘  
으  
로,  
우  
리  
식  
대  
로  
살  
아  
나  
갈  
수  
있  
습  
니  
다.

미국  
의  
야  
수  
적  
인  
대  
조  
신  
적  
대  
시  
정  
책  
으  
로  
하  
여  
우  
리  
인  
민  
에  
게  
들  
의  
위  
지  
는  
고  
통  
의  
시  
간  
이  
길  
어  
지  
는  
데  
준  
비  
태  
하여  
우  
리  
의  
절  
대  
적  
힘  
은  
계  
속  
가  
속  
적  
으  
로  
강  
화  
되  
고  
있  
으며  
그  
들  
이  
부  
다  
치  
게  
될  
안  
보  
위  
험  
도  
정  
비  
태  
하게  
증  
대  
되  
고  
있  
습  
니  
다.

공화국  
핵무력  
은  
우  
리  
국  
가  
에  
대  
한  
미  
국  
과  
그  
추  
종  
세  
력  
들  
의  
엄  
중  
한  
정  
치  
군  
사  
적  
도  
발  
을  
억  
제  
하  
고  
전  
망  
적  
인  
위  
협  
을  
관  
리  
하  
는  
데  
서  
자  
기  
의  
중  
대  
한  
사  
명  
을  
책  
임  
적  
으  
로  
수  
행  
할  
것  
이  
며  
바  
로  
이  
에  
대  
하여  
오늘  
국  
범  
으  
로  
명  
기  
하  
였  
습  
니  
다.

자  
주  
와  
자  
존,  
인  
민  
의  
운  
명  
을  
제  
일  
귀  
중  
히  
여  
기  
고  
그  
에  
위  
해  
로  
되  
는  
적  
대  
행  
위  
를  
절  
대  
로  
용  
서  
치  
않  
으며  
한  
다  
면  
무  
조  
건  
해  
내  
교  
야  
마  
는  
우  
리  
공  
화  
국  
이  
기  
에  
이  
렇  
듯  
국  
가  
핵  
무  
력  
정  
책  
을  
법  
화  
하  
는  
담  
대  
한  
정  
치  
적  
결  
단  
을  
내  
릴  
수  
있  
은  
것  
입  
니  
다.

세  
계  
는  
패  
권  
주  
의  
가  
더  
욱  
살  
판  
치  
는  
오늘  
날  
진  
정  
한  
자  
주  
강  
국,  
정  
의  
로  
운  
국  
가  
란  
어  
떤  
나  
라  
이  
며  
악  
의  
제  
국  
미  
국  
에  
당  
당  
히  
맞  
서  
나  
가  
는  
우  
리  
공  
화  
국  
의  
불  
가  
항  
력  
적  
인  
기  
상  
이  
얼  
마  
나  
강  
한  
가  
를  
다  
시  
금  
똑  
똑  
히  
알  
게  
될  
것  
입  
니  
다.

동  
지  
들!  
두  
자  
루  
의  
권  
총  
으  
로  
부  
터  
시  
작  
된  
우  
리  
혁  
명  
이  
오늘  
에  
이  
르  
기  
까  
지  
걸  
어  
온  
간  
고  
하  
고  
도  
기  
나  
긴  
려  
정  
을  
돌  
이  
켜  
보  
느  
라  
니  
그  
길  
에  
옹  
축  
된  
만  
단  
사  
연  
들  
이  
마  
쳐  
와  
마  
음  
이  
뜨  
거  
워  
짐  
을  
금  
할  
수  
없  
습  
니  
다.

성  
과  
는  
실  
로  
거  
대  
해  
도  
전  
체  
인  
민  
들  
의  
아  
낌  
없  
은  
지  
지  
성  
원  
과  
고  
귀  
한  
피  
땀,  
형  
언  
할  
수  
없  
은  
고  
생  
과  
바  
꾼  
것  
이  
기  
에  
더  
욱  
더  
무  
겁  
게,  
소  
중  
하  
게  
느  
껴  
집  
니  
다.

사  
실  
제  
국  
주  
의  
련  
합  
세  
력  
과  
단  
독  
으  
로  
맞  
서  
가  
장  
야  
만  
적  
이  
며  
황  
포  
한  
제  
재  
압  
박  
행  
동  
을  
짓  
부  
시  
면  
서  
공  
화  
국  
핵  
무  
력  
을  
건설  
하  
고  
전  
투  
태  
세  
를  
완  
성  
한  
다  
는  
것  
은  
모  
진  
고  
통  
과  
극  
난  
을  
감  
수  
하  
고  
견  
어  
야  
하  
는  
생  
사  
판  
가  
리  
의  
결  
사  
정  
이  
었  
습  
니  
다.

그  
만  
금  
사  
랑  
하  
는  
우  
리  
인  
민  
들  
과  
아  
이  
들  
이  
허  
리  
띠  
를  
더  
조  
이고  
배  
를  
더  
뽏  
아  
야  
하  
고  
귀  
중  
한  
우  
리  
의  
모  
든  
가  
정  
들  
에  
엄  
청  
난  
생  
활  
안  
이  
조  
래  
되  
지  
않  
으  
면  
안  
되  
었  
습  
니  
다.

(2면으로 계속)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

(1면에서 계속)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하였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각오해야 했고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수는 없었던 험난한 초행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자기 인민에 대한 믿음 하나로 시작한 우리 당의 위업을 절대지해주고 친선만고를 다 떠맡아 이겨내며 일심전력으로 받들어주었습니다.

국가핵무력건설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하는데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크게 공헌하였지만 그처럼 모질고 지속적인 고생을 다 감내해내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승리를 굳게 믿어준 우리 인민이 아니었다면 핵보유의 길을 끝까지 걸을수 없었을것이며 우리 공화국이 이렇듯 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날을 맞이하지 못하였을것입니다.

우리 인민만이 가지고있는 특출하고 열렬한 강인성과 애국심은 결국 온갖 난관을 딛고 이겨 우리 국가의 영광과 감히 건드릴수 없는 존귀한 위엄을 하늘끝에 떠받들어올렸습니다.

나는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온 나라 인민들에게 가장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철석의 의지를 담아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 고착시킨것은 참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핵무력정책을 법화해놓음으로써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우리의 핵정책이 바뀌자면 세상이 변화야 하고 조선반도의 정치군사적환경이 변해야 합니다.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습니다.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제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입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제국주의가 남아있으며 미국과 그 추종무리들의 반공화국책동이 끝장나지 않는한 우리의 핵무력강화과정은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공화국핵무력은 곧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고 영원한 존엄이라는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핵무력정책이 법화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정부의 평화에 호적립장과 우리 국가핵무력정책의 투명성, 당위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침략과 전쟁이 없는 세계에서 평화롭게 살려는것은 인류의 념원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오지 않으며 그것은 제국주의전쟁을 억제할수 있는 힘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핵무력정책을 법화한것은 자주권과 평화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정의의 타격으로 됩니다.

공화국핵무력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폭제로부터 우리 령토와 인민, 자존을 수호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사용되며 따라서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나라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핵무기는 그 특성으로 하여 관리와 운용 등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법적으로 정확히 규제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한 상태에서 다른 목적에 랑용되거나 불순한 리익실현에 도용되어 임의의 순간에 인류를 무서운 핵침화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핵무력정책과 관련한 이번 법령에 핵무력의 사명과 구성, 그에 대한 지휘통제, 사용원칙과 사용조건,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등 세부적인 조항들을 명백히 밝혀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념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앞으로 누구도 우리 핵무력에 대하여 시비하거나 문신시하지 못할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역사적진군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법적무기를 마련해놓은것은 올해에 이룩된 자랑찬 승리와 성과들과 더불어 전인민적인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됩니다.

올해 공화국정부앞에는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수행의 탄탄대로를 다져놓아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섰습니다.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어느 사업이나 미증유의 시련과 난관을 동반하였지만 우리의 투쟁은 더 과감하고 전진적이었으며 보다 소중한 결실들을 낳았습니다.

진국 이래 처음 맞닥든 위협적인 공공보건의사태를 일일단결, 일심일체의 완강한 투쟁으로 짧은 기간에 극복하고 진국을 또다시 청결지대로 만들어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지켜낸것은 올해 우리가 쟁취한 커다란 승리로 됩니다.

온 세계의 의혹을 물리치고 전대미문의 방역대전을 승리적으로 속전속결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우월성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이는 온 나라 인민들에게 신심과 자부심을 더해주고 사회주의건설에 더욱 활력있게 분투해나서도록 적극 추동하였습니다.

최대의 방역위기상황에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지만 전체 인민이 후호의 비판과 락심, 공포와 절망도 없이 더욱 분기하여 당면한 영농사업들과 중요대상건설들을 비롯한 올해의 방대한 투쟁과업들을 완강하게 추진하여온것도 마땅히 자부해야 할 기적같은 성과들입니다.

자립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 운수를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과 인민생활향상과 직결된 여러 부문들에서도 공세적인 투쟁으로 생산계획수행에서 좋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경제사업을 비롯한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주의적성격이 복원되고있으며 수십년을 내다보는 전망적인 중장기적인 사업들이 실제, 추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진진을 위한 토대와 밑천들이 마련되고있습니다.

과학기술사업이 실용적인 계획과 목표에 따라 현실적문제해결에로 확고히 전환하고 나라의 교육사업이 균형적으로, 실지 쓸모있는 인재육성방향으로 발전하고있으며 보건부문에서 그 어떤 방역위기, 보건위기에도 대응할수 있는 귀중한 실천적경험을 마련한것을 비롯하여 올해에 들어와 사회주의 문화건설에서도 의미있는 개진이 있었습니.

올해 투쟁에서 이룩된 승리와 성과들은 우리 공화국이 모든 분야에서 주객관적도전들을 물리치며 침체와 담보, 좌절을 모르고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으로 즐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동지들! 자주와 정의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든 우리 공화국은 시대와 력사앞에 중대한 사명을 걸머지고 있으며 이는 보다 과감한 투쟁과 전진, 더 큰 승리를 요구합니다.

핵무력정책을 국법으로 고착시킨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결단에 걸철한 온갖 반대세력들이 기필코 더 발악적으로, 악착스럽게 나오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위험과 고통, 제재와 유혹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언젠가는 우리의 핵무장을 완전해제시키고 우리 제도를 붕괴시킬수 있다고 망상하는 적대세력들의 체질적본능이 개조되지 않는한 우리앞에 도사리고있는 도전과 장애는 절대로 가시질수 없습니다.

세계는 사회주의강국으로 향한 우리 인민의 선택이 어떻게 지켜지는가, 조선이 자기의 결심을 어떻게 실천해나가는가, 이 땅에서 또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가를 팔목할것입니다.

시련의 고비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진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이 지나온 로정에서 증명한 자기 고유 특질입니다.

우리는 이 불변의 법칙대로 앞으로도 계속 강해져야 하며 우리가 선택한 한길에서 변침을 모르고 목질한 투쟁과업들을 무조건적으로, 완벽하게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공화국정부앞에는 당이 제시한 로선과 정책들을 철저히 견지하고 집행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국가의 위상에 걸맞는 새로운 혁신과 발전들을 이룩해야 할 과업이 나르고있습니다.

국가방위력건설을 최우선, 최종대시하여 절대적힘을 무한대로 끌어올리고 공화국무장력을 더욱더 불패하게 만드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제1혁명과업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특성과 전략적지위로 보나, 우리 혁명대에 조성된 현정세로 보나 제국주의침략 무력에 비한 우리 국가의 확고한 군사적우세는 필수 불가결의 요주로 나섭니다.

최근년간 우리가 공개한 일정한 부문의 국방발전상을 보고 미구에 저들이 직면하게 될 커다란 위구감을 느낀 미국은 지금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계속 매달리는 한편 조선반도주변에 저들의 핵공격 무기들을 대대적으로 투입하면서 엄중한 협박성무력 시위행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남조선 현 《정권》도 저들 군대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기 위해 우리를 억제한다는 강도적인 논리를 주장하며 《한미확장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여 《한》미련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느니, 이른바 《한

국형3축타격체계》를 구축하여 《억제력》과 《대응력》을 높인다느니 떠들면서 지역의 군사적진장을 더 야기시키는 위험한 군사행동과 군비현대화놀음을 본격화하고있습니다.

제반 우려스러운 상황들은 우리 국가주변의 군사적정세가 장기성을 띠고 악화되고있다는것과 따라서 우리가 이에 철저히 준비되어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적들의 책동으로 긴장격화된 정세는 오히려 우리에게 군사력을 더 빨리 비약시킬수 있는 훌륭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위력강화의 정당성과 그 우선적강화의 불가피한 명분을 제공해주는것으로 되였습니다.

공화국의 국방성과 국방공업은 조성된 국면을 굳건강화의 더없는 좋은 기회로 삼을것입니다.

우리의 국방공업은 당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전략 사상을 높이 받들고 자기의 계획적인 발전방향을 정확히 견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세대대무장장비개발을 본격적으로 적극화해나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핵무력의 전투적신뢰성과 작전운용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진술핵운용공간을 부단히 확장하고 적용수단의 다양화를 더 높은 단계에서 실현하여 핵전투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첨단전략전투무기체계들의 실질배비사업을 부단히 다그치며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국가특유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김없이 발양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하나의 사상의지, 덕과 정으로 굳게 뭉쳐있고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일해나가는것은 우리 나라에만 고유한 우월성이며 이 땅의 모든 위대한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침, 우리 국가의 제일가는 무기인 일심단결의 위력을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합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국가사업전반에 참담계 구현하고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사에 적극 참가하도록 주권활동을 심화시켜야 합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속에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 우리 생활이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심어주며 우리 사회의 집단주의기풍과 공산주의미덕, 미풍이 계속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공민적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고떡없이 부강해질것입니다.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을 투철한 주적관, 대적관념을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는 계급의 전위투사, 전초병들로 준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국가경제발전의 5개년계획을 완수하고 그 성과를 다음단계로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5개년계획을 반드시 수행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고 식량문제, 인민소비품문제를 비롯한 인민생활향상과 관련한 실질한 문제들을 원만히 푸는것은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5개년계획은 나라의 경제사업실태와 현실적가능성에 토대하여 지속적인 경제상승과 인민생활의 뚜렷한 개선향상으로 나아가는것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5개년계획이 완수되면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관계, 자립적토대가 정비보강되며 나라의 경제전반이 장성케도에 올라서게 될것이며 인민들의 식의 주문제를 푸는데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실지 지난 1년 8개월기간 정비보강전략에 따라 국가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이 보다 강화되고 경제관리에서 불합리한 문제들이 적지 않게 바로잡혔으며 생산정상화와 개진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가 적극 추진되고 특히는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지방건설, 농촌건설이 힘있게 전개되어 주택문제를 풀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졌습니다.

당 제8차대회가 밝힌바와 같이 2025년말에 가서 2020년수준보다 국내총생산액은 1.4배이상, 인민 소비품생산은 1.3배이상 장성하는것으로 보아도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고 다음단계의 보다 거창한 투쟁으로 확신성있게 나갈수 있는 담보로 됩니다.

지금 우리앞에 조성된 경제난관은 엄혹하지만 인민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있는 공화국정부는 5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을 내세우고 강력히 조직집행하여 반드시 성공적인 결실들을 안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이 경제사업전반을 철저히 장악하고 다같이 추진시켜나가는 방향에서 경제건설과 경제발전을 옹계 조정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을 총괄하는것만큼 인민경제전반을 동시적, 균형적으로 장성발전시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잘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 내각은 국가경제의 근간으로 되는 중요부문들에 힘을 쏟으면서도 다른 경제부문과 인민생활전반에 대하여 다 관심하고 책임지며 돌보아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사업을 내각에 집중시키는 체제와 질서가 점점 강하게 세워지고있는데 맞게 생산활동, 경제활동의 전반적실태를 단단히 건어우고 경제부문들사이의 유기적인 련계와 협동을 잘 지어주며 처지거나 뒤떨어지는 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제때에 따라세워 국가경제사업의 균형성과 원활성, 효율성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식량문제와 인민소비품문제를 가까운 년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과 경공업발전에 계속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정부의 경제정책은 다 인민들의 물질경제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 그들에게 유족하고 부럼없는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것입니다.

우리가 일관하게 내밀고있는 사회주의건설도 말그대로 인민이 바라고 그러보는 리상사회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으로서 그 투쟁이 심화될수록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가닿는 실질적인 결과물이 현실로 나타나야 합니다.

인민생활에서 기초적인 문제 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여 인민들이 계속 고통하게 만든다면 그런 경제사업은 아무리 해도 필요없습니다.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급선무로 나서는 것은 먹는 문제, 소비품문제를 푸는것입니다.

5개년계획기간에 국가알곡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여 인민들에게 식량이 넉넉히 차레지도록 하며 경공업생산을 질량적으로 높여 필수소비품, 기초식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농사를 안전하게 짓고 생산성을 높이며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양곡수매와 식량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농사조건과 환경이 점점 더 불리해질것이 예견되므로 여기에 대비할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기상기후의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높고 안전한 알곡소출을 거둘수 있게 종자혁명을 비롯한 과학기술적대책을 세우는것을 농사에서 기본근리로 틀어쥐고나가며 전국이 총동원되어 농촌을 로력적으로 지원하고 한해 농사에 소요되는 영농물자들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꾼들이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기정사실화하고 농업생산전반을 따져보면서 그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합니다.

농업생산에서 성과를 즐기고 안정도를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관개시설을 복구, 완비하는데 있습니다.

온 나라가 말라붙어 마사지거나 로화될것은 복구정비하고 증설할것은 증설하면서 관개시설을 개진하기 위한 사업을 2~3년안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올해부터 밀재배면적과 밀생산량을 늘리고있는데 앞으로 해마다 이를 계속 확대하는것과 함께 생산된 밀을 잘 보관, 가공처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인민들의 식생활구조를 개선하려는 당과 정부의 정책이 온을 나라에게 하여야 합니다.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받들고 농촌진흥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이자 곧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이며 사회주의수호전입니다.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밝혀진바와 같이 농촌을 진흥시키는데서 선차적인 과업은 농업근로자들을 개명시키는것입니다.

농촌혁명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의식수준을 개변시켜야 그들이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 관철에서 핵심적이고 주동적인 역할을 할수 있으며 격변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농촌을 더욱 개화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령역을 넓혀주자면 농촌에 선진성, 현대성을 접목하여야 합니다.

(3면으로 계속)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

(2면에서 계속)

농업생산을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것을 비롯하여 농업생산환경을 현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할뿐 아니라 모든 농촌을 부유한 농촌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살림집건설을 기본으로 지역적,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촌건설계획을 바로 정하고 단계별로 모가 나게 수행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급속한 진흥이 실지 눈에 띄이게, 농민들의 피부에 가당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수산업을 추켜세워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가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바다어로, 바다양식을 활발히 진행하는것과 함께 모든 강하천, 호수들에서 새끼물고기방류와 그물우리양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양어활동을 대대적으로 근기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산자원의 보호, 종식정형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획적으로 늘려나가는것입니다.

소비품문제를 풀기 위한 경공업혁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겠습니다.

소비품의 질제고는 경공업혁명에서 종자이고 기본 방향입니다.

당면한 계획수행에만 급급하면서 나날이 분명해지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고 락후한 소비품을 계속 생산한다면 나라의 경공업실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절대로 발전을 기대할수 없게 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원료, 자재의 질적보장과 생산공정의 현대화, 품질감독사업에 대한 높은 요구성을 따라세우고 인민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소비품들의 질을 철저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전국의 지방공업을 추켜세워 지방이 변하고 자체로 발전하는 새시대를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들이 제구실을 하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습니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자체의 원료원천으로 군내수요를 보장해나가는 실천적경험을 전국의 시, 군들로 확대하는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내오고 설계와 시공을 비롯하여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군들의 능력이 약한것만큼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꾸린 다음에는 제발로 걸어나갈수 있게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워주고 초기투자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공업공장들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데 선차적힘을 넣어 군내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여야 하며 확대재생산을 하여 공장을 자체로 운영해나가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기간공업부문이 웅당 계속 기치를 들고 인민경제전반을 견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간공업부문은 자립경제의 주추이고 기둥이며 이 부문에서 생산적업이 일어나야 인민경제전반이 용을 쓸수 있고 다음단계에로의 경제발전도 확고히 내다볼수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이미 많은 자금을 지출하였으며 전력공업을 비롯한 여러 기간공업부문들의 현대화와 능력확장, 생산정상화에 필요한 경제실무적대책들도 계속 세워나가자고 합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에서는 정비보강전략에 따르는 계획들을 완강하게 집행해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생산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여 인민경제의 장성과 발전의 동력, 잠재력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특히 로력관리,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정상적으로 예견성있게 잘하여 각종 설비사고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국가적립장에서 생산소비적립계를 강화하여 기간공업부문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절약이자 중산이고 애국이라는 관철점에 로력과 에너지를, 자재, 부지 등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최대한의 실리를 얻을수 있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지로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적전향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렵다고 하여 현행생산에만 급급하는것은 보신이고 후퇴이며 혁명을 하지 않겠

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업을 설사 그것이 크든작든 먼 후날에 가서도 우리 후손들이 유감없이 향유할수 있도록 설계하고 작전하며 창조하는것을 신조로 하여 투쟁해나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애국자입니다.

사정으로 인민을 위하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함이라면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내세워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동시에 완강히 밀고나가야 하는것입니다.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대규모온실농장건설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고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들에 계속 큰힘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통이 큰 건설대상들을 마음먹고 전개해나가자면 중앙과 지방들에 능력이 큰 건설생산기지를 꾸리고 마감건설을 비롯한 질좋은 건설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망적인 대건설작전들을 끊임없이 펼치고 성과적으로 완결하는 투쟁을 통하여 인민의 세기적숙원이 하나하나 빛나게 실현되어나가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양양한 진도를 과시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동서해를 련결하는 대운하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 반드시 성공을 안아와야 합니다.

현시기 공화국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재해성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인한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는 지금 세계적인 난문제로 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해마다 재난이 발생하고있습니다.

물을 다스리는것은 천기를 다스리는것이며 치수사업은 중앙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 치수사업은 강바다이나 파고 강기슭에 옹벽이나 쌓는것으로 그치고있는데 과학적인 증장기계획 다시말하여 치수전략을 세우고 실행해나가야 합니다.

나라의 강하천들의 물조절능력을 정확히 판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완충지점들도 조성해놓으면서 수리조중계를 완비하는것을 비롯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여야 합니다.

자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당면하게는 큰물이 발생하는 경우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력량과 기계를 모든 도, 시, 군들에 충분히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와 사방야계사업, 해안방조제공사, 도로개건을 비롯한 국토환경보호와 관리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더욱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동지들!

교육과 과학기술, 보건사업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인재, 실지 능력있는 인재들과 현실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성과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공화국정부는 인재전략, 과학기술발전전략을 국가의 전면적부흥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의 교육사업이 질적수준에 있어서 발전하는 세계적추세와 시대적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의 목적이 실천능력을 갖춘 쓸모있는 인재들을 키워내는데 지향되지 못하고 순수 교육 그 자체를 위한 교육, 점수평가를 위한 교육으로만 국한되다보니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있습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이 실지 현실에서 써먹을수 있는 산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바칠수 있게 학과목을 바로 선정하는 사업을 잘하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학생들의 실력을 월등하게 올려세워야 합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기술대학들의 교육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려 모던 졸업생들을 유능하고 경쟁한 과학기술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중앙과 지방의 모든 교원, 학생들에게 교육조건, 학습조건, 학습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데 국가적인 힘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할을 높이고 기술인재자원을 효과있게 증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연구수단과 인재가 준비되어야 하는것만큼 국가적으로 항상 여기에 관심을 돌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실속있는 대책을 취해나가야 합니다.

계속 강조하는바이지만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건수나 채우는 식의 태도를 철저히 경계하고 1년에 다문 몇건이라도 나라의 경제를 실지 들어올릴수 있는 온

전한 과학기술성과를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진전과학기술인재화의 중요한 거점인 과학기술보급기지의 운영정형을 정상적으로 로해하고 실속있게 총화하면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부단히 심화시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과학기술성과들을 공유하고 흡수, 통보하며 과학기술자료들의 열람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사업, 우수한 단위와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 평가하는 사업을 잘하여 온 사회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생명건강을 보호증진시킬수 있게 의료봉사사업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공보건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보건의 현실태가 전면적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수준과 능력제고의 절박성이 더욱 립증되었습니다.

인민의 생명건강이 첫걸리는 관철점에 의료봉사사업에서 절실한 문제들부터 풀어나가야 합니다.

나라가 모든 의료품을 자체로 충당할수 없는 조건에서 인민들의 치료와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품을 수입해서라도 원만히 대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약품들을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로기구공장, 의료용소모품공장들의 신설,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도, 시, 군병원들을 일신시키고 약국들을 표준대로 잘 꾸리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보건부문에서 모든 의사, 간호원들이 인간생명의 수호자로서의 자질과 공산주의적인 품모를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번 악성비루스박멸투쟁기간에 만사람을 감동시켰던 의료부문 일꾼들의 자기희생적인 헌신의 정신세계를 누구나 다 적극 따라배우도록 장려함으로써 《정성》이라는 두 글자를 뜨거운 심장으로 체득한 훌륭한 의료일꾼들을 나라의 그 어디서나 찾아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의학과과학기술을 세계선진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으며 인민적이고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의료봉사체도를 완비해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역능력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악성전염병들이 계속 발생할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것만큼 이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국가중대사업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국가방역능력건설과 관련하여 제시된 과업들을 건별로 따져가면서 철저히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경내밖의 류동적인 전염병상황과 특성을 항상 긴장하게 주시하며 만약 그것이 류입되는 경우 즉시 발견하고 제압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나라 보건전문기관들에서 옮겨올에 신형코로나비루스전파와 함께 위험한 돌림감기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전문가들은 지난 5~6월에 악성전염병을 경과하면서 우리 사람들속에 형성되었던 항체력가가 10월경에는 떨어질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때문에ワク접종을 책임적으로 실시하는것과 함께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전 주민이 자체의 건강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할것을 권고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현 국제정세는 정의와 부정의, 진보와 반동사이의 모순, 특히 조선반도를 둘러싼 세력구도가 명백해지고 미국이 제창하는 일국세계로부터 다국세계로의 전환이 눈에 띄이게 가속화되고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현 국제정세의 발전추세와 자주강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것입니다.

대외사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존엄사수와 국위제고, 국익수호를 공화국외교의 제일사명으로 변함없이 틀어쥐고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주변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가일층 확대발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배격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모든 나라, 민족들과 사상과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협조하면서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나라를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외교전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앞에 나선 이상의 과업들을 관철하여 오늘의 자랑찬 승리를 사회주의건설의 더 큰 승리로

이어가자면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에서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합니다.

공화국정부는 당의 로선과 정책, 방침을 절대적기준으로 하여 모든 사업을 조직지휘하며 자기 활동을 당정책실현으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합니다.

모든 정부기관들이 당의 결정지시를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집행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강하게 세우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당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것을 어떤 경우에도 어길수 없는 철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는 정권기관들의 사업은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하며 그만큼 임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정권기관들은 자기 지역에서 존엄높은 공화국정권을 대표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졌다는 사명감을 특특히 명심하고 자기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자기 지역, 자기 단위앞에 부과된 당과 정부의 정책, 지시를 전적으로 맡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며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주민들의 사업과 활동이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되어나갈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당과 정부의 인민적시책들이 모든 아이들, 모든 세대들에 골고루 빠짐없이 가당도록 헌신적노력을 기울이며 먹는물문제, 펄갠문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의 생활상문제를 항상 알아보고 사소한 불편과 고충도 겪지 않도록 사전대책을 면밀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꾼들이 비상한 사상적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한결같이 분발, 분투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꾼들은 말그대로 심부름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꾼이라는 부름은 결코 그 어떤 명이나 직권이 아니며 인민에게 복무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떠나 일꾼의 존재가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꾼들이 편안하고 호의호식하면 벌써 그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며 인민들에게 더 큰 고생이 차례지게 됩니다.

모든 일꾼들은 자기 위치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은 고생을 해야 할 자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며 잠시도 헛눈을 팔지 말고 항상 중앙감속에서, 긴장된 책임의 식속에서 자기 임무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일감이 제기되면 회피하거나 적당히 굶뎠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솔선 온몸을 내내고 치밀하게 작전지휘하며 이신작적의 기풍으로 투신하면서 훌륭한 결실로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사업에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 당과 인민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자신들을 부단히 정신도덕적으로 수양단련하며 혁명박애, 일박애 모르고 말은 본분을 손색없이 해나갈줄 아는 진짜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는 이제 곧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 74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뜻깊은 이날을 맞으며 우리 공화국은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위상을 더욱 뚜렷이 과시하는 또 하나의 특대사변을 자기의 긍지높은 력사에 찬연히 आरो새기었습니다.

우리의 송고한 리념, 우리의 성스러운 위업이 성공과 승리의 더 높은 단상으로 오를수록 우리는 더 큰 시련과 역경을 맞받아 뚝고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류례없는 극난을 동반하고있으며 이제 우리 앞길에 또 어떤 도전이 막아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은 후호의 주춤과 동요도 없이 분명고 전진하고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며 더욱 강해질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업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로선도 모두 정의이고 진리이며 우리에게 이 세상 누구도 깨뜨리지 못할 당과 인민대중이 역적으로 결합된 일심단결의 위대한 힘이 있기때문입니다.

동지들!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며 우리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할수록 그 승리는 더 빨리 앞당겨질것입니다.

모두다 한마음한뜻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외의 두리에 굳게 단결하여 사랑하는 어머니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십시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 7차 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1일회의가 9월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하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일회의에서는 첫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와 둘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림록화법을 채택함에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9월 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정부의 시정방향을 천명하시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장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강국건설의 험로역경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가장 궁지높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빛내여가시는 사회주의조선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고 위대한 존엄의 대표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부흥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당면한 투쟁방향과 정책과업들을 밝힌 김정은원수님의 시정연설을 경건히 청취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정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자주와 정의, 자력부강의 한길로 승승장구해갈 우리 공화국의 끝없이 양양한 전도를 띠

관하게 하는 위대한 실천강령, 국가발전 지침을 받아안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 폭풍같은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로 전적인 지지찬동을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강령적인 시정연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줄기찬 발전과 전진을 확신성있게 인도하는 전투적기치이며 원대한 리상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국가와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백과전서적인 혁명문헌, 불멸의 대강으로 된다.

회의에서는 셋째 의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토의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대의원이 보고를 하시었다.

보고자는 국가핵무력정책을 법화하여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핵무력발전의 합법적요구이라고 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위협속에 살아온 우리 국가가 핵무력을 그에 상응하게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략이고 우리 인민자신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이러는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그는 국가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이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며 핵무력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규범성을 보장하는 강력한 법적담보로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화국핵무력의 사명과 운용에 관한 내용이 전면적으로 구체되어있는 법령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해설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시었다.

셋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 국방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인민의 세기적인 숙명이 성취되는 력사의 순간을 가슴뿌듯한 긍지속에 체감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반영하여 공화국의 존립과 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핵무력정책에 대한 법령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공화국핵무력정책에 관한 법령의 채택은 책임적인 핵보유국, 존엄높은 자주강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인것으로 만들고 우리 혁명의 근본리익과 인민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자주적결단과 견결한 국권수호, 국익사수주의의 뚜렷한 과시로 되며 조선반도와 지역, 세계의 평화변영에 이바지하는 믿음직한 법적무기를 마련한 중대한 정치적사변으로 된다.

회의는 넷째 의정으로 조직문제를 토의하시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폐회사를 하시었다.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는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주요정책들을 실현하는 데서 중대하고 의의있는 문제들을 토의 결정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영원한 안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할수 있는 정치적,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 전면적부흥을 향한 공화국인민들의 투쟁기세를 비상히 앙양시킨 력사적인 회의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전쟁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적정의가 실현된 평화로운 세계건설을 지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정,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태세는 현존하고 진화되는 미래의 모든 핵위협들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믿음직하고 효과적이며 신속된 핵억제력과 방위적이며 책임적인 핵무력정책, 신속성있고 목적지향성있는 핵무기사용전략에 의하여 담보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핵무력정책을 공개하고 핵무기사용을 법적으로 규제하는것은 핵무기보유국들사이의 오판과 핵무기의 람용을 막음으로써 핵전쟁위험을 최대한 줄이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핵무력이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핵무력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침략, 공격으로부터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인민의 생명 안전을 수호하는 국가방위의 기본력량이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적대세력으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이 파멸을 초래한다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침략과 공격기도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전쟁억제가 실패하는 경우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전쟁의 결정적승리를 달성하기 위한 작전적사명을 수행한다.

## 2. 핵무력의 구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각종 핵탄과 운반수단, 지휘 및 조종체계, 그의 운용과 갱신을 위한 모든 인원과 장비, 시설로 구성된다.

## 3. 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유일적지휘에 복종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 임명하는 성원으로 구성된 국가핵무력지휘기구는 핵무기와 관련한 결정으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3)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협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

## 4. 핵무기사용결정의 집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을 즉시 집행한다.

## 5. 핵무기의 사용원칙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과 공격에 대처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보유국과 야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한 이 나라들을 상대로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6. 핵무기의 사용조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륙무기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되었거나 립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과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핵무기로 대응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 7. 핵무력의 경상적인 동원태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은 핵무기사용명령이 하달되면 임의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즉시에 집행할수 있게 경상적인 동원태세를 유지한다.

## 8.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보관관리, 수명과 성능평가, 갱신 및 폐기의 모든 공정들이 행정기술적 규정과 법적절차대로 진행되도록 철저히 하고 안전한 핵무기 보관관리제도를 수립하고 그 리행을 담보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핵물질 등이 루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운다.

## 9. 핵무력의 질량적강화와 갱신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외부의 핵위협과 국제적인 핵무력대세변화를 항시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게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력이 자기의 사명을 믿음직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각이한 정황에 따르는 핵무기 사용전략을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 10. 전파방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령토에 배비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기술, 설비, 무기급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

## 11. 기 라

1) 2013년 4월 1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효력을 없앤다.

2) 해당 기관들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다.

3) 이 법령의 임의의 조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구속하거나 제한하는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주체 111 (2022)년 9월 8일

평 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황리에 진행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이 숭엄히 모셔져있는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 기슭에서 9월 8일 밤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가 대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경축행사에 참석하시었다.

만수대의사당과 인민극장사이에 특색있게 마련된 드넓은 경축행사장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여온 수도의 각계층 시민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경축행사의 서막을 이체롭게 장식하며 함공륙전병의 강하기교와 전투비행대들의 기교비행이 진행되었다.

환희로운 9월의 밤하늘에 정의롭고 강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필승불패성의 상징이며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이고 행복이며 찬란한 미래인 공화국기를 눈부시게 펼치고 강하하는 락산산병에게 참가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보다 밝은 미래를 펼치고 백승으로 향도하는 위대한 당중앙에 경의를 드리며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이 장쾌한 폭음을 울리면서 기교비행을 하였다.

밤하늘을 기세차게 썰며 원주선회기교비행, 저공주전비행, 원주선회 및 급라선 상승기교비행을 비롯한 여러가지 난도높은 비행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황홀한 축포탄들을 쏘아올리고 부채살모양의 령통한 비행운을 새기는 영웅한 비행대들을 향해 관중은 열정넘친 환호와 박수를 보내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경축행사장에 나오시었다.



순간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강철의 신념, 결출한 령도력으로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공화국의 영예와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 가시는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담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공화국창건일을 맞은 전체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이 경축행사에 초대되었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들, 경축행사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 시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사당의

기발제양대에 국기를 제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노래 《우리의 국기》의 숭엄한 선율이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성스러운 영광의 기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정히 펼쳐들고 입장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건국의 하늘가에 높이 띄워주시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의 총대로 지켜주신 기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세상에, 새 세기의 창공에 존엄높이 휘날려가시는 강국의 기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주악과 눈부신 조명속에 만수대의 사당 국기제양대를 향하여 솟아올랐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9.9》, 《경축》이라는 글발이 빛나는 하늘가에 조국의 70여성상의 력사와 무궁번영할 천만년미래가 비껴있는 람홍색기발을 서서히 제양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뿔어오르는 긍지와 애국의 열정, 래일에 대한 확신에 넘쳐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

였다.

강국의 국기가 펄펄 나뭇기는 9월의 하늘가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되고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영원불래의 위력을 떨쳐가는 공화국정권의 위상을 비껴안고 수도의 한복판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로 거연한 만수대의사당을 배경으로 대공연이 시작되었다.

예술인들은 공화국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높이 울린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인민의 노래, 사회주의찬가, 로동당송가들을 새롭게 창조형상하여 공연무대를 펼치었다.

민족사상 처음으로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의 주인된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를 담아내고 삼천리강산을 진감하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와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장중하게 울리었다.

출연자들은 불멸의 노래들을 통하여 인민대중중심의 국가건설위업을 개척하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 불멸할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이민위천의 반석위에 주체혁명의 산아로 솟아올라 승리와 영광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무진한 힘의 원천을 구가한 설화시 《빛나는 조국》이 숭엄한 격정, 고귀한 추억을 불러오며 뜨겁게 메아리쳤다.

불세출의 인민적수령들의 고귀한 한생의 유산인 우리식 사회주의야말로 심장을 바쳐 사랑하고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며 몸과 맘 다 바쳐 길이 받들어야 할 위대한 조국이라는 전인민적사상감정을 활화처럼 분출시킨 설화시는 관람자들의 가슴가슴을 세찬 격동으로 높뛰게 하였다.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뜻과 정으로 굳게 뭉쳐 인민의 나라를 수호하고 빛 내이는 려정에 태어난 투쟁의 노래, 창조 노래들이

공화국의 70여성상의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미증유의 엄혹한 격난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뚫고 헤치며 백번을 일떠서고 천번을 솟구쳐올라 이 땅우에 국가부흥의 터전을 억척으로 다진 백철불굴하는 인민의 영웅적행로를 되새기게 하는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단결과 전진, 승리전통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 총만된 공연의 분위기를 승화시키며 조선로동당에 대한 송가들과 애국주의주제의 명곡들이 려이어 무대에 올라 우리 공화국의 민족사적인 대승리와 세기적번영을 현명하게 인도하여온 우리 당의 위대성을 칭송하며 경축행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위대한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모든 영광을 맞이할 총성과 애국의 일편단심이 맥동치는 공연에 관람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6면으로 계속)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인생의 가장 값높은 영광을 지니게 된 감격과 환희가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뚫어번지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며 근로하는 인민의 삶과 투쟁을 행복과 명예의 단상에 긍지높이 내세워주시는 우리 원수님을 눈물속에 우러르며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또 올리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에 공헌한 남다른 자량과 긍지를 안고 공화국창건 경축행사에 초대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축하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과 정부

는 어머니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바쳐가는 근로인민의 애국의 구슬땀과 순결한 양심을 천만금보다 더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시면서 향유의 권리보다 공민적 의무를 앞에 놓고 나라의 큰일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고 분투하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인민의 대표자, 참된 애국자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견인 불발의 노력을 경주하며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사회주의호의 전위, 새로운 혁신의 창조자로 핵심적, 선구자적역할을 다하고있는 애국적인 근로자들의 고결한 인생관과 공적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로력

혁신자, 공로자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과 존경하는 리설주녀사를 모시고 만수대의사당 정원에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진행되었다.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뜻깊은 자리를 같이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육체의 정과 크나큰 믿음을 한생의 제일재부로 간직하고 우리 인민의 영원한 보금자리인 어머니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일심전력, 결사분투해 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로 충만되어 있었다.

본사기자



연회에서는 축하연설이 있었다.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식술의 정을 나누는 감동깊은 화폭이 펼쳐진 연회장에 꿈같은 행복의 시간을 보내는 참가자들의 기쁨이 차넘쳤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있는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의 건강과 사업성과를 헤아려주시며 따뜻한 고무격려해주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국가의 강대함은 위대한 인민의 진함없는 애국의 열정과 피타는 노력과 심혼이 깃든 하나하나의 창조물과 사업성과에 의하여 안받침된다고 하시면서 참가자들이 앞으로 조국과 인민이 긍지높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시대의 선구자로 영예로운 삶을 빛내여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시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 성 황 리 에 진 행

(5면에서 계속)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상떨치는 공화국의 영광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불가항력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펼쳐보인 공연은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선군가인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와 《우리의 국기》로 끝났다.

축포란들이 편이러 터져올라 경축의 밤하늘에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일만경을 펼치었다.

부흥강국의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가 분출되는 경축행사장은 위대한 조국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정으로 용암마냥 끓어번졌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하시며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공연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며 몸소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을 축하해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열광의 환호성이 세차게 터져오르는

만수대기슭은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와 더불어 더욱더 끓어넘치는 애국의 힘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더 강대하고 더 찬란하게 시대우에 떠올릴 우리 인민의 불굴의 혁명신념과 충천한 기개, 끝없는 희열로 격정의 대하를 이루었다.

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장식한 성대한 경축행사는 성스러운 조국의 력사

가 새겨주는 백전백승의 진리를 퍼놓는 심장에 간직하고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 따라 세계가 보란듯이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신심드높이 펼쳐나갈 온 나라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의지를 파시한 의의깊은 정치축전으로 청사에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로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 주시였다



#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9일 공화국창건 74돐 경축행사에 참가한 방역부문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나라의 방역전초선을 지켜가는 방역부문, 보건부문 일군들을 우리 제도의 수호자, 인민의 생명을 돌보는 믿음직한 보호자로 값높이 내세워주시고 뜻깊은 9월의 경축행사에 도 불러주시며 한생토록 간직할 크나큰 영광을 거둬안겨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으로 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의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 정력적인 경도로 세계보건사에 전무후무한 방역대승을 안아오시고 우리식 사회주의 체도의 정치사상적위력과 우월성을 온 세상에 떨쳐주신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고 우리 인민모두의 삶과 행복의 전부이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국의 아픔과 시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운명을 함께 하며 당과 혁명이 부르는 곳에 남먼저 어깨를 내대는 참된 애국충신들, 고마운 사회주의근로자들이 억척으로 받들어주기에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위업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 참가자들이 방역능력이자 국가의 안전보장능력이며 인민의 생명수호능력임을 항상 자각하고 방역대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더욱 확대공고화하면서 그 어떤 보건위기에 도 주도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방역능력건설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발전과 온 나라 가정의 안녕을 굳건히 담보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방역실천, 보건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데 심신을 강 그리 바침으로써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더쳐올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당을 받드는 충성의 열정과 강인한 정신력, 인민에 대한 뜨거운 정성으로 최악의 보건사태를 성과적으로 제압하고 방역안정을 쟁취하는데 공헌한 당의 붉은 방역전사, 보건

전사들에게 따듯한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의 생명수호를 위한 준엄한 방역전에서 핵심적역할을 하며 당과 정부의 방역정책, 보건정책을 결사관철한 우리 시대의 참된 보건

일군, 애국자들의 건인불발의 노력과 분투가 있어 우리 공화국의 창건일을 이처럼 평온과 환희속에 성대하게 경축할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방역진지 강화에 바쳐가는 그들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사 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며 공화국은 끝없이 룡성번영할것이다

오늘 공화국의 인민들은 력사에서 가장 존엄하고 긍지높은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에 살며 투쟁하고있다.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 불패의 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세기적인 비약과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위대한 나라가 바로 공화국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권위가 최상의 경지에 서 빛나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거창한 대진군이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공화국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4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공화국이 창건된 력사의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부강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넓은 앞길이 열리게 되었다. 해외동포들이 누리는 값없는 삶과 권리, 크나큰 민족적공지와 영예도 이날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이다.

일찌기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고귀한 경험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건국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였다.

전체 조선민족의 총의에 따라 주제37(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됨으로써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진정한 자주의 나라, 인민의 국가가 건설되게 되었으며 그레로부터 이 땅

에서는 인민의 몽친 힘 노도 내리며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는 장엄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은 창건된 이후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신 영웅조선으로, 빈터우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역센 나라를 펼친 천리마조선으로, 가장 수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전인미답의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용 승리에 이끄시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국가를 일떠세워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와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받들어 공화국을 강대한 사회주의국가로 빛내 이 시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확고부동한 의지이고 신조였다.

일심단결을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모든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공화국을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로 전변시키신분이 위대한 장군님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암살책동이 극도에 달한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가 굳건히 수호되고 강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리게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사상과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었다.

경사로운 공화국창건기념일

을 맞이한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창공높이 펄펄 휘날리는 랑홍색기울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경의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오늘 공화국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경에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며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국가건설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에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서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높이 발양시키데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필승의 보검으로 되고있다.

열화같은 인민사랑, 무비의 담력과 배짱, 결사의 의지, 불철주야의 헌신지도강행군으로 주체적국방공업발전의 힘과 역량을 앞장서서 헤치시며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져놓으시고 온 나라를 뒤흔치는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를 창조하도록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와 국력은 비상히 강화되었다.

공화국은 자주적대가 강화

고 자기식의 발전궤도를 따라 굴함없이 돌진해나가는 존엄높은 강국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와 전횡이 란무하는 현 세계에서 공화국은 국가와 인민의 근본리익과 관련하여서는 티끌만한 양보나 타협도 몰랐다.

자주의 혁명로선을 국가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한데다가 공화국이 전대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사소한 곡절과 탈선도 없이 승승장구해오는 근본비결이 있다.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도 많지 않은 공화국이 절세위인의 령도따라 세계정치정세흐름을 주도하며 자주의 강국으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은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이다.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펼쳐지고 강국의 주인된 인민의 자부심이 차넘치고있는 긍지높은 현실은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자주의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일관하게 구현하여오신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국방력과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가진 강국이다.

강력한 군사적힘이 없다는 것이 우리 민족이 과거 망국력사에서 얻은 뼈저린 교훈이다.

하기에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는 것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회색적인 헌신과 불분불휴의 로고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국방력을 마련해주시였다.

제대로 걸어나가는 경제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킬 방위력이 없이는 자주정치도 실현할수 없고 언제 가도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할수 없다.

자력으로 살아가는것이 정당하고 보람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나라들이 결점이 막아서는 도전과 난관을 제힘으로 뚫고 나갈 의지가 부족하여 그 길에 들어서지 못하고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따라 공화국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는 날로 굳건해지고있다.

경쟁하는 시련속에서도 전진과 비약을 이룩해나가는 공화국의 현실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잠재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보여주는 뚜렷한 증시조 된다.

공화국은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전도양양한 국가이다.

인민은 사회주의국가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공화국인민의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가사보다 국사를 앞세우고 나라와 어려움을 함께 하며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한마음한뜻으로 만드는 전체 인민의 자각적열의와 헌신적투쟁을 떠나 공화국의 승리적전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그 어디를 가보아도 서로 위해주고 감싸안아주는 미덕과 미풍이 차넘치고 동지적협조와 단결의 힘에 의하여 집단적혁신의 불길, 대중적영웅주의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것이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이다.

령도자와 인민사이의 사랑

과 믿음은 공화국을 주체의 강국으로 전변시킨 근본원천이다.

인민에 대한 절세위인의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역대 자금이 재부를 가지고도 이룩할수 없는 놀라운 전변을 안아오는 발전동력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믿고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인민은 령도자의 믿음을 한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몸과 마음 다 바쳐 보답하는 여기에 공화국의 불가항력의 원천이 있다.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높이에서 빛내어주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은 나라의 근본이고 사회주의의 기초이다.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신성시하고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기풍이 국풍으로 확립된 국가만이 진정한 강국으로 될수 있다.

경에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공화국이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일관하게 내세우고있는 절대불변의 원칙이다.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정치와 경제, 문화의 모든 영역에 인민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의 림장이 확고히 지배하고 있으며 전체 인민이 주권행사와 국가사회관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오늘 공화국에서는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로선과 정책을 작성하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하고있으며 모든 생산과 건설이 인민들의 편익보장을 첫차리에 놓고 그들의 번영과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있다.

공화국은 인민들의 운명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따뜻한 삶의 보금자리이다.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경에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이고 공화국정권의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이다.

형언할수 없는 고난속에서도 인민의 리상거리들이 련이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고 큰물과 태풍파해를 입은 재해지역 인민들의 불행을 가시기 위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것은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있는 공화국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폭이다.

평범한 나날이나 시련의 시기에나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것은 결코 조건이 유리하고 모든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다.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물질문화생활, 행복의 리전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국가의 모든 활동을 지향시켜나가는 공화국이 아니고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것이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튼튼한 기초우에서 끊임없이 강화발전하는 존엄높은 사회주의국가인 공화국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리러모시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애국애족의 령도를 충실히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공화국의 강성부흥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시고 온 세상에 찬란히 빛내여나가는 절세위인들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이시며 온 겨레의 운명이고 미래이시다.

누구나 조국은 곧 경에하는 원수님의 품이라는 신념을 억척으로 새기고 그이를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셔야 한다.

이 세상 제일 위대하고 제일 강하신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신다는 크나큰 긍지와 민족적자존심, 든든한 배심을 안고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절세위인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은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세기를 이어 이 땅우에서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가 전민송가로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이고 운명이며 미래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조선의 노래》

아침의 해빛이 아름답고 곱다고  
우리의 이름을 조선이라 불렀네  
이처럼 귀하고 아름다운 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 찾아볼수 있을까  
...

볼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는 나라를 빼앗기고 산실고 물설은 이국땅에서 살아가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민족의 빛을 선사주고 반일애국사상으로 계몽시키며 반일성전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깊은 뜻을 안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노래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일의 피바다 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강도 일제를 쳐물리치고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에 인민의 주권을 반석같이 다져주시였다.

《조국의 품》

모란봉에 붉게 띠는 노을인가요  
대동강에 곱게 비친 무지개인가요  
노을처럼 아름다운 조국의 품은  
내가 자란 정든 집 고향입니다  
...

그이께서는 동무들에게 모란봉의 소나무는 곳곳이 살아있다고 하시면서 미국놈들이 아무리 줄폭탄을 퍼부어도 아버지장군님께서 찾아주시고 인민군병사들이 지키고있는 아름다운 우리 조국은 절대로 불태울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엔 불라는 모란봉이 아니라 노을이 붉게 피는 아름다운 모란봉이 불꽃의 조선의 상징으로, 승리한 조국의 모습으로 안겨오시였던것이다.

불태울수도 불탈수도 없는 사랑하는 조국은 곧 수령님의 품이라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에 담으시였다.

《조국찬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어준  
정든 고향 집뜨락 조국여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

라는 노래구절에는 바로 수령님과 장군님의 넉넉, 인민의 리상이 모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바로 이 노래와 함께 공화국기 무궁토록 나뉘는 이 땅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넉넉,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거이어 이루고 공화국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듦이라는 역사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으신분이 경에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은 위대하고 숭고한 그 세계를 심장우에 안아보며 노래한다.  
빛나라 이 조선 인민공화국!  
본사기자 주일봉

천만심장에 소중히 간직된 공화국기발



수기 박사메달과 나누는 대화

내 나이 어린 60개를 넘어섰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현대판 《홍길동》 선생이라고 부른다.  
현대판 《홍길동》!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부름이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름이다.  
그것은 위대한 김일장군님께서 나에게 정을 담아, 믿음을 담아 안겨주신 이름이기때문이다.  
지금도 주제99(2010)년 9월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베풀어준 영광의 그날을 잊을수 없다.  
그날 자장도의 어느 한 공장을 찾으며 통합조종실에 틀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곳에 있던 나를 대변에 알아보시였다.  
그러시고는 지난 6월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과일말린련공장에서 만났던 동무인데 오늘은 여기서 또 만났다고, 동무는 현대판 《홍길동》이라고 말씀하시며 호랑이날 오랜 시간에 걸쳐 나

대학에서 또 큰일을 했다 시며 당중앙위원회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였다.  
예로부터 복은 쌓으로 오지 않는다 했건만 과학자들을 제일로 아끼고 내세우는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나에게 받은 행복이 이렇게 거듭 차려졌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내가 해놓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몸을 영웅으로, 박사로서 키워준 조국을 위해 공민으로서 응답 할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벽에 걸여놓은 박사메달과 그것과 이어져있는 삼색천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군한다.  
우리 나라 공화국기발을 형상한 성스러운 그 삼색천과 함께 빛나는 박사메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조국을 부강하게 하는 데 많은 람구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국기는 더욱 빛날것이라고...  
그렇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깊이 새기고 경에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내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나는 영원한 청춘의 메기와 정열을 안고 조국을 위해 뛰고 또 뛰는 현대판 《홍길동》으로 살겠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자동화체계응용연구소 소장 정일철



애국의 넋을 심어주는 명곡들



# 이것이 북과 남의 차이이다

## - 평양의 경루동에서 서울의 강남구를 내려다보며 -

경루동!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의 언덕에 궁궐같이 솟아오른 천하절경의 구슬다락이다.

해방전 한껏만 비가 와도 시꺼먼 감탕물이 범람하며 모든것을 휩쓸어가던 여기 토성양에 이처럼 황홀하고 호화로운 주택들이 전설속의 선경으로 우뚝 떠올라 세인의 부러움을 한껏 자아내고있다.

천지개벽이란 단순한 표현으로는, 현대문명의 별천지라는 한마디 말로는

이곳 경루동의 진정한 의미를 다 전할 수 없다.

경루동, 나지막한 언덕이다. 높지도 않다.

그러나 이 지구상의 호화주택, 변화가들이 발밑에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인민의 상상봉이다.

우리는 지금 인민의 세상 만세를 심장으로 웨치며 평양의 경루동-인민대중중심의 제일봉에서 서민천시, 부자천국의 상징인 서울의 강남구를 내려다보고있다.

청되는 《라위 퀘리스》처럼 울긋불긋 뱀뱀같은 네온불빛들이 가리워 보이지 않고 《쪽방촌》, 《달동네》, 《두더지굴》로 불리우는,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인권동토대가 닥아나인 강남구의 어둡고근한 뒤모습이다.

개, 돼지보다 못한 인생들의 거처지들이 조롱조인지, 개관조인지 구름마을, 수정마을이라 불리우고있는것은 또 얼마나 비극인가.

그 마을들은 민족의 정취어린 그림들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관자, 비닐, 지합들로 만든 집 아닌 집들이 장마철에는 물웅덩이로 변하고 염천에는 불도가니로, 밤중에는 달빛이 통채로 비쳐들어 실음의 눈물을 자아내는 빈민촌들이다.

그런데 간신히 생계를 영영해가는 이곳 주민들에게 보다 끔찍한 날이 기다리고있다.

피괴당국이 재건축을 떠들며 그들에게서 아예 빈민촌에서조차 살 권리를 빼앗아내고 협지로 내쫓으려 하고있는것이다.

피괴위정자들은 막바지인생들의 터전에 요란한 초고층건물들을 지어 일차라리만 경계적효과를 보겠다는니, 야구장의 30배에 달하는 《지하복합형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의 맨하탄으로 만들겠다는니 하며 떠들고있다.

아무리 명당자리라고 해도 근로인민의 참된 삶이 깰수 없는 곳이라면, 근로대중의 피땀을 빨아 뽕청대는 휴혈귀족들의 소유지라만 사람 못살 더러운 시궁창이나 다름없다.

근로인민의 행복의 지상락원인 경루동, 특권계층의 천국이고 근로인생의 지옥인 강남구.

이것이 바로 극적인 대조를 이루는 북과 남 두 제도의 실상을 생동하게 펼쳐 보여주는 산 화폭이다.

이라 일러왔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하여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당당히 누리면서 꿈속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하였던 궁궐같은 호화주택에서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된 우리 근로자들이 과연 로동당세상의 부자, 천상의 신신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하다면 서울의 강남구는 어떠한가.

자본주의정객들이 민심유혹의 간판으로 찍하면 내드는데는 바로 주택문제, 부동산문제이다.

그것은 《내집마련》이 보통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어도 해결할수 없는 일생일대의 꿈이기때문이다.

이 지구상에 선진문명국이라고 자랑하는 나라들에서도 주택문제만은 영원히 해결불가한 난치성문제로 공인되어있다.

선거철만 되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행정관료들이 겨우내기로 나서서 《내집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청을 높이고 온갖 감언리설로 공약언수를 다짐하지만 일단 권력만 차지하면 부동산투기를 비롯한 온갖 범죄를 일삼다가 덤미를 잡혀 민심의 못매를 맞고 죽쇄를 차는것이 레상사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서울의 강남구는 부동산 투기범죄의 서식지, 그 대명사이다.

권세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이곳의 천정부지로 오르는 땅값을 노리고 벌의 별 사기행위가 성행하여 부동산투기범죄의 백화점으로 락인된 강남구에 서민

을 위한 정책이 들어설 송곳 꽃을만한 공간조차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정치를 민심을 기만하고 유혹하는 계교와 책략의 전부로 여기는 괴뢰위정자들에게 있어서 근로인민이란 특권계층의 영리를 위한 한갓 로동수단, 말하는 봉사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극소수의 특권계층들이 유흥과 방종속에 세월을 허송하는 썩고 병든 세계, 호화촌의 부신 불빛에 가리워진 서민들의 침을 내뿜지 부와 빈의 아득한 인생극차를 백일하에 폭로해주는 강남구의 앞날은 칠칠야밤 그대로이다.

무엇이 부러우랴, 누구인들 경멸하지 않겠나.

강남구의 치솟은 초고층건물들과 교통대란으로 혼잡된 도로가 부러우랴, 퍼터지는 생존경쟁의 아비규환에 경멸의 침을 내뿜지 않을수 있겠나.

돈과 권력을 위한 사기와 협잡, 모략과 음모속에 날과 달이 바뀌고 아무런 리상도 꿈도 없이 오직 돈과 환락만을 쫓는 그 세계에 어느 누가 구도감을 느끼지 않겠나.

우리 인민의 심장의 웨침 소리높이 울려 퍼진다.

우리는 존엄로운 인민, 덕과 정의의 대부자, 최고분명의 향유자들이다.

우리에게는 세상만부를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 천어머리가 계신다!

위대한 사상과 숭고한 리념, 억척의 신념과 불변의 의지가 온 나라에 전면적으로 구현된다는것이다.

평양의 경루동은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이리하여 온 나라의 경루동으로 되고 있다.

경루동이 변형하는 로동당시대,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더불어 온 나라 방방곡곡에 자기의 모습을 확장해갈 때 부익부, 빈익빈의 썩어빠진 제도 하에서, 근로인민을 개, 돼지라고 멸시하는 반인민적악정하에서 서울의 강남구는 끝없는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고있다.

《강남이 잠졌다》

남조선의 한 일간지는 지난 폭우때 서울의 최고호화라고 하는 강남구에서 빈민촌들이 침수되고 반지하주택,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숨진 참사를 접하는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다.

무엇에 잠겼는가, 무엇에 침수되어 영영 솟구치지 못하였는가.

시대의 질문이 주어지고있다.

대답은 단 하나 력사의 격류속에 자본주의제도가 이미 자기 존재를 마치고 있는것이다.

우리 사회주의변화가의 불빛이 위대한 어머니를 모신 인민의 대가정에서 꽃피는 기쁨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를 비껴담고 환희롭게 떠오르는 아침해돋이처럼 돈과 권력에 대한 숭배, 인간에 대한 증오와 멸시, 미래에 대한 절망이 서려있는 식민지호화가의 불빛은 인민의 버림을 받은 반동적사회제도의 조락을 예고하는 시뻐건 신호등이다.

\* \* \*

북과 남의 차이.

이는 사회에서 차지하는 근로인민의 지위의 하늘과 땅같은 차이이고 인민을 위한 정치와 특권계급을 위한 정치의 근본적차이이며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광명과 암흑과 같은 차이이다.

아름다운 구슬다락 경루동.

우리 인민의 리상과 념원, 행복과 번영, 궁지와 자부심의 상징인 이곳은 서울의 강남구만이 아닌 자본주의의 썩고 부패한 모든 세계를 부정하며 인간의 참된 행복을 갈구하는 온 민족과 인류에게 희망의 등대마냥 우뚝 솟아 빛을 뿌리고있다.

인민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사회주의는 비인간적이고 반인민적인 자본주의의 종국적멸망을 제촉하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래일을 향하여 더욱 활력있게, 기운차게 전진할것이다.

세상이여 부러워하라.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며 이 나라 천만식물을 한몫에 안아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주시는 위대한 어머니를 모신 이 땅의 축복받은 주민들.

전 종 수

### 인민의 락원, 특권층의 천국

아름다운 평양의 밤, 달빛어린 금물결 일렁이는 보통강의 새 유람선에서 바라보는 경루동의 야경은 황홀함을 넘어 신비스럽기만 하다.

하늘의 별무리가 통채로 내려앉았는가, 집집마다에서 행복의 웃음담고 쏟아져나오는 불빛들이 어찌 그리도 절경을 이룬 보통강반의 불야경앞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탄성을 터쳐올린다.

하늘의 별들조차 부러워 내려앉은 저 별천지에서 사는 주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결코 범상치 않은 그 주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려본다.

방직공장 직포공, 무궤도전차운전수, 철도기관사, 연료사업소 로동자, 화력발전소 작업반장, 도로관리원, 지식인, 문화인들...

경루동의 호화주택들, 자본주의사회 같으면 수백수천만금을 들여도 살수 없는 이 희한한 지상락원에 바로 근로하는 인민들, 거리에 나서면 언제든지 쉬이 만날수 있는 보통시민들이 살고 있는것이다.

경루동의 주인들이 터놓는 심장의 도로들이 우리 가슴들을 끝없이 울려준다.

평양가족이김공장 작업반장은 가족이기는 일은 제일 고되고 천하여 옛날에는 백정질로 멸시받았지만 오늘의 로동당시대에는 이렇듯 하늘높이 떠받들려우고있다고 격정을 터친다.

락랑정화장관리소에서 일하는 공로자는 남들이 꺼려하는 낯은일을 수십년 세월 묵묵히, 성실히 해온것이 전부인데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이런 혜택을 받아안았다고, 아직도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말한다.

그들의 불같은 토로를 들을수록, 눈물에 젖어있는 적동빛얼굴을 마주할수록 생각은 더더욱 깊어만 간다.

세상에는 제멋대로 자랑하는 호화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 소리높이 물고싶다. 우리의 경루동처럼 가장 평범한 인민이 참된 호화의 향유자로, 진정한 주인으로 사는

인민의 지상락원이 있는가.

평양의 경루동에 서면 서울의 강남구가 대조적으로 떠오른다.

현혹중이 나도록 명멸하는 불빛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왜 그리도 초라하고 처량해보이는가.

서울에서 강남구는 가장 값비싼 초호화주택들의 집합구로 되어있다.

현 남조선당국의 장관들중 3분의 1, 《국회》의원 수십명을 비롯하여 가장 권세있고 부유한자들만 살고있는 특권층의 천당이다.

억만금을 차고있지 못하면, 돈과 권력을 향수에 지미워졌다 해도 사기협잡과 권모술수에 능하지 못하면 서울 강남구의 입사자격을 가질수 없다.

근로하는 인민을 멸시하고 인민의 고통을 짜내며 인민우에 군림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자들이 이 강남구의 실세들이다.

강남구는 결코 부자들의 천국으로만 불리우지 않는다.

근로인생들의 구슬픈 막바지처지가 그대로 함축되어있는 지옥이기도 하다.

남조선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통

천상의 신선들, 지옥의 서민들

고 들어선 호화주택구 경루동, 이는 우리 당과 국가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투쟁하는가를,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어떤것인가를 만방에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생생한 축소판이다.

자본주의사회의 제노라하는 억만장자들도 그 황홀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침을 흘릴수밖에 없는 경루동의 천국같은 최고급살림집들의 주인들이야말로 황금옥좌에 앉아 로동당만세, 사회주의 만세를 부르는 《천세가》들이라고 당당히 자랑할수 있다.

세상만부의 전인민적송가인 《세상에 부럽없으라》의 노래소리가 불같은 창가마다에서 뜨겁게 울려나오는 경루동의 남녀로소 누구라없이 자기들은 천상의 신선이 되었다고 자랑한다.

예로부터 아무런 근심도 모르고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것이 전설속의 신선

해빛밝은 변화가, 락조비낀 호화가

자본주의변호론자들은 저들의 변화가에 관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문명자들이 만들어낸 《물질적재부》와 《문화》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 빛을 바래어도 이미 그에 현혹된 문명은 사람들이 부유한 생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변화가에 끊임없이 찾아든다는것이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의 자본주의사회를 미화하고 분석하는 황당한 궤변, 흑백전도의 억지주장이다.

아무리 호화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현란한 불빛을 발산한다고 하여도 물질적부부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그 향유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지옥의 도깨비 빛이나 다름없다.

인민대중의것이 될 때 참다운 변화가, 해빛밝은 변화가 되는것이다.

인민의 존엄이 아름다운 구슬처럼 평통하게 빛을 뿌리고 넘치는 행복이 끝없이 흘러내리는 경루동은 사회주의변화가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왜 평양의 경루동을 서울의 강남구라고 흉내도 낼수 없는 행복의 리상향이라고 궁지에 넘쳐 자부하는것

인가.

우리의 경루동이 온 나라로 끝없이 넓어지는 행복의 축소판인 서울의 강남구는 나날이 쪼그라들며 향락의 독소에 중독되어 몰락해가는 남조선사회의 축소판이기때문이다.

평양의 경루동은 온 나라에 인민의 무릉도원을 전파하는 또 하나의 발원구로 되고있다.

경루동과 송화거리에 이어 오늘은 화성거리로, 래일은 더 화려하고 웅장한 새 거리와 마을, 일터와 공원, 로동자구들과 농촌리들로 우리의 행복의 반경은 나날이 넓어져 사회주의대전경화는 더욱 장쾌하게 펼쳐질것이다.

우리의 경루동이 온 나라에 제2, 제3의 경루동으로, 훌륭하고 멋들어진 인민의 무릉도원으로 끝없이 넓어진다것은 결코 건설경험이나 물질적부의 전수와 이동만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땅 그 어디에나 인민의 리상향을 더 빨리, 더 많이 일떠세워 세계가 우리러보는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래일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진종수



평양의 경루동



서울의 강남구





#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를 안고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한 지금 해외동포들의 심정은 참으로 남다른것이라고 할수 있다.

산실고 물결은 이역땅에서 나라없는 설움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한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 조국은 그 무엇보다 바꿀수 없는 소중한것이다.

하기에 재중동포들도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담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둘이켜보면 재중동포들은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하례같은 은정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안은 해외동포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일이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재중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민족의 존엄과 얼을 굳건히 지키면서 허리를 굽고 살아가는 모습도 안타깝게 보아주시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무어주시고 재중동포들이 나아갈 앞길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멀리있는 자식을 더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국가적인 기념일이나 명절을 맞을 때면 재중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러주시었고 조국체류기간 근심걱정없이 국가행사에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신분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재중동포들을 뜨거운 한복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재중총련과 동포들을 위해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돌려주셨다.

하기에 재중총련의 일군들과 동포들은 어머니조국의 사랑을 매



일 때 시각 가슴뜨겁게 느끼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을 힘차게 걷고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내성협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를 비롯한 재중조선인단체들과 동포들은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하여 조국의 뜻깊은 명절과 기념일들이 오면 김일숙명중학교에 모여 그곳에 모셔진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다채로운 경축모임들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태양절에도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다양한 경축공연을 준비하여 진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4일의 봄 전선예술축전무대에 조국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연변대학 예술학원 교원들과 학생들, 연변가무단의 동포예술인들로 제2차 4월의 봄 전선예술축전공연준비사업을 면밀히 진행함으로써 축전의 성과적보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날로 그 면모를 일신하는 조국의 발전모습은 재중동포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커다란 힘과 용기로 되고있다.

TV를 통하여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을 목격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부회장 김경수는 위대한 조국의 무진막강한 위용을 남김없이 보여준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에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열병식을 보

는 매 순간순간 조선민족의 일원이라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고싶은 마음으로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었다. 그리고 우리 공화국 무력을 세상에 으뜸가는 혁명강군으로 일떠세우시려고 바치신 정열과 광명성절을 비롯하여 조국의 장정과 심혈, 로고가 어려와 눈물을 흘리었다고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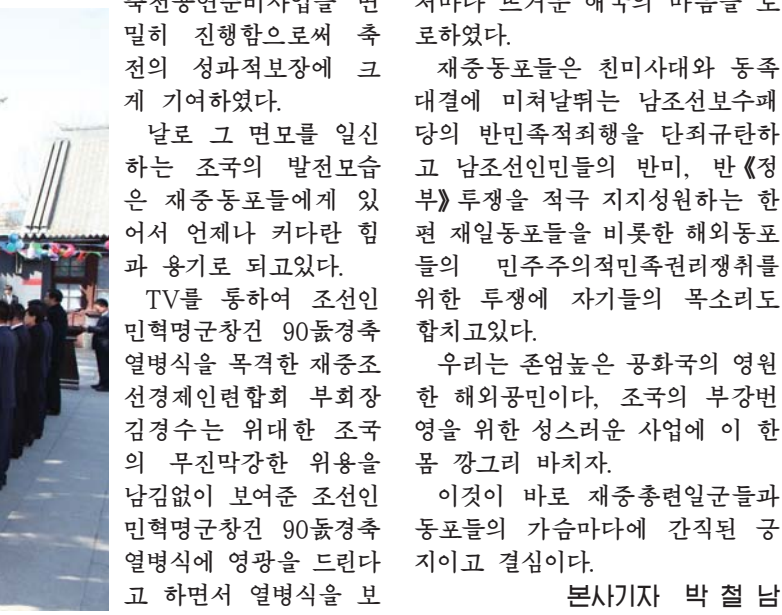
지난 5월 공화국경내에 천만 뜻밖에 악성비루스가 류입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재중조선인내성협회 일군들과 회원들 그리고 리보배, 림순을 비롯한 재중총련의 로세대 일군들과 동포들은 한몸이 그대로 소독수가 되고 약전이 되어서라도 조국을 돕고싶다. 조국에서 방역위기가 빨리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저마다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토로하였다.

재중동포들은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달라지는 남조선보수매당의 반민족적죄행을 단죄규탄하고 남조선인민들의 반미, 반《정부》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한편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목소리도 합치고있다.

우리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원한 해외공민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에 이 한 몸 깡그리 바치자.

이것이 바로 재중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긍지이고 결심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 겨레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로 (3)

1970년대의 마지막 해인 주제68(1979)년 10월 11일.

이날은 윤이상선생의 한생에서 잊을수 없는 날이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1981년에 창작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였다.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의 청중이 되어서 작품의 가치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주제73(1984)년 9월 어느날 또 다시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수령님께서는 이태전에 그가 조국에 가지고 온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들어보았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었다고. 그런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 작품을 특목으로 3번이나 들어보았는데 곡이 매우 좋고 사람들에게 투쟁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감동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곡이라고 치하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선생이 창작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가지고 예술영화를 만들면 좋은 영화가 될것이고 해외동포들이 연방 다른 나라를 돌릴것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의 재능으로 보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곡을 많이 창작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여름 한철에는 조국에 와서 3~4개월씩 휴식도 하면서 조국의 예술인들과 만나 그들의 예술활동도 고무해줄테대 하여 교시하시었다.

참으로 한가슴에 받아안기에 남우도 큰 신임이고 은정이였다.

둘이켜보면 윤이상선생은 세계음악계에서 작곡가로서의 명성도 얻었고 음악축전들에서 최고상도, 명예칭호와 훈장들도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값높은 평가와 믿음에 어찌 비길수 있었는가.

한생의 가치와 음악의 생명력이 재능으로보다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길에 담

으며 분열된 조국의 현실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주제로 한 음악작품을 남겼다.

그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가 1981년에 창작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였다.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의 청중이 되어서 작품의 가치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더 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주제73(1984)년 9월 어느날 또 다시 조국을 방문한 윤이상선생을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수령님께서는 이태전에 그가 조국에 가지고 온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들어보았는데 아주 좋은 작품이었다고. 그런 작품을 세계에 알리는것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 작품을 특목으로 3번이나 들어보았는데 곡이 매우 좋고 사람들에게 투쟁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감동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곡이라고 치하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선생이 창작한 교향시곡 《광주여 영원히》를 가지고 예술영화를 만들면 좋은 영화가 될것이고 해외동포들이 연방 다른 나라를 돌릴것이라고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생의 재능으로 보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애국투쟁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곡을 많이 창작할수 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해마다 여름 한철에는 조국에 와서 3~4개월씩 휴식도 하면서 조국의 예술인들과 만나 그들의 예술활동도 고무해줄테대 하여 교시하시었다.

참으로 한가슴에 받아안기에 남우도 큰 신임이고 은정이였다.

둘이켜보면 윤이상선생은 세계음악계에서 작곡가로서의 명성도 얻었고 음악축전들에서 최고상도, 명예칭호와 훈장들도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값높은 평가와 믿음에 어찌 비길수 있었는가.

한생의 가치와 음악의 생명력이 재능으로보다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길에 담



본사기자

##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3)

### 동해바다에 수장된 《EC-121》간첩비행기

미국은 1968년 무장간첩선 《무에블로》호사건에서 웅장한 교훈을 찾을 때인 다음해인 1969년 4월에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공화국의 영공에 침입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계획적이며 고의적인 도발행위였다.

이에 공화국은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대답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치 않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군 공군부대에 공화국 영공에 침입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하는 미국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을 좌멸할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만단의 출격태세에 있던 공화국의 전투비행사들은 즉시 리륙하여 간첩비행기에 명중탄을 퍼부어 동해바다에 수장해버리었다. 이것은 강력한 군력에 의거한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 조치였다.

저들의 간첩비행기가 박살났다는 금보통 받은 미국대통령 닉슨은 후다닥 놀라 국가안전회의를 열어놓고 《대응책》을 모의하였다.

그 《대응책》이란 구축함과 비행기들을 긴급동원하여 《EC-121》의 잔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수색선을 벌리는 한편 조선반도수역에 무력을 집결하여 공화국의 공군기지를 《초토화》한다는것이였다.

공화국에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였다.

그러던 주제58(1969)년 4월 19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당시 군사정전위원회사업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고있던 한 일군에게 우리에게 도발을 거는 제국주의자들에게는 무자비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민족의 위협공갈책동에 단호한 필장으로 맞받아나가야 하며 놈들의 침략적본성을 만천하에 폭로

하여야 한다고. 놈들의 침략무력이 우리 나라 연해에 도착하기 전에 놈들을 군사정전위원회에 끌어내어 된대를 안겨야겠다고.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된대를 안기면 놈들은 닭쫓던 개신새가 되고말것이라는 실로 승산이 명백한 전법을 가르쳐주시었다.

정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견하신대로 돌변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제290차회의장에 끌려나온 적들은 도적이 밭이 저러다라는 격으로 제편에서 먼저 《EC-121》격추사건을 꺼내놓으면서 불그락푸르락거렸다.

공화국측 수석위원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담력과 배짱 그리고 그이께서 짜주시신 방안대로 적측 수석위원에게 이렇게 추상같이 들이쳤다.

—그래, 당신네 나라에서는 집에 강도가 뛰어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조선사람들은 강도에에게는 동등이 제격이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후려친다. 이번 《EC-121》이 조선의 동등이 세례를 받고 동해바다에 수장되였다.

대답하라. 《EC-121》이 《유엔군》에 속하는 비행기인가 아니면 미태평양함대에 속하는 비행기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질문에 미국측 수석위원은 쓴웃음을 삼킨

번이처럼 쩔쩔맸다.

간첩비행기가 《유엔군》소속이 아니라 미태평양함대소속 비행기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사실대로 소속을 인정한다면 공화국영공에 침입한 제놈들의 죄가 국법에 따라 보다 엄중시되기에 문이었다.

어찌할바를 몰라하며 닭똥같은 비지땀만 뚝뚝 흘리던 적측 수석위원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서더니 갑자기 말 한마디 없이 회의장에서 쫓겨나 버렸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실이 대서특필되어 세상에 알려지고 뒤이어 공화국정부의 강경론조의 성명이 나가자 은 행성이 미국에 대한 규탄으로 와글와글 들이쳤다.

결국 미국은 공화국의 공군기지 《초토화》는커녕 이 땅의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조지 섬산반도주변에 집결시켰던 무력을 슬그머니 철수시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듯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시신 담력과 배짱으로 공화국의 무력은 또다시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에 맞서시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열매롭게 수호하였다.

본사기자 리연선



## 미국의 남조선강점력사는 치떨리는 범죄의 역사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때로부터 77년이 되었다.

둘이켜보면 이 지나간 70여년의 력사는 미국이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안겨준 죄악의 력사이다.

지금으로부터 백수십년전 침략선 《서민》호의 침입으로부터 조선에 대한 피로운 침략의 첫발을 댄 미국은 1905년 《가르라-라포드협정》의 체결후 일제의 조선강점을 부추기면서 장차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책동을 체계적으로 감행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말기에는 조선침략정책실현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조국해방전쟁 개시로 일본의 패망이 예상되던 앞당겨진데 불안을 느낀 미국은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위한 《분담선》의 미명하에 조선반도를 둘로 가르는 38°선을 서둘러 고안해냈다.

런이 미국은 련합군총사령관 맥아더의 《일방명령 제1호》를 통하여 조선의 38°선남지역에 대한 군사적점령을 련합국들에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으며 1945년 9월 8일에는 미군을 남조선에 들이밀었다. 이렇게 남조선에 기여든 미국은 남조선전역에 군정을 실시한다는것을 공포하고 남조선인민들이 세운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민주주의적정당, 단체들을 강제해산하였다.

미국이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 강점자라는것은 《군정령》은 남조선의 유일한 정부이다. ... 남조선주민은 군정령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만일 명령에 불복하거나 또는 고의로 군정을 비방하는자들은 처벌될것이다.》라고 한 당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하지의 망발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군은 남조선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침략군, 점령군의 본색을 날같이 드러내면서 남조선인민들을 다치는대로 탄압학살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미군은 1948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무려 5만여명에 달하는 인민들을 체포하고 우리 나라의 영구분열을 노린 망국적인 5.10선선당일에 만도 500여명을 학살하고 850여

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1948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동안 체포되어서 3만 5 0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였다고 한다.

미국 중군기자였던 마크 케인은 자기의 수기에서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상륙작전을 준비하던 미군사령관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었다.》라고 하였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로군리학살 만행에 비롯하여 남조선의 이른 곳마다에서 벌어진 미군의 야수적살인만행으로 하여 124만여명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학살당하였다.

프랑스의 한 신문도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하였다.》고 폭로단죄하였다.

력사에는 강점군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만행에 대해 적지 않게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살인범죄행위들은 그 야수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상고급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1957년 9월 나물개는 소녀를 《행》이라고 쏘아죽인 군산소녀 총격사건, 1992년 10월 윤금이살해사건, 2002년 6월 길가던 두녀중학생을 강간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미군장차녀중학생살인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강점 미군이 감행한 살인만행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올해 5월초에도 미군사병 2명이 20대의 남조선녀성을 집단성폭행하는 몹서리치는 범죄를 감행하여 남조선 각계층의 격분을 자아냈다.

이렇게 남조선강점 미군에 의한 치떨리는 범죄행위가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지만 범죄자들은 미국적인 《한미행정협정》의 보호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죽은자는 있어도 죽인자는 없으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것이 오늘 남조선의 현실이라고 울분을

최적목적에서였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조선전쟁도, 수십여년간 그칠 사이언이 감행된 《팀 스퍼리트》, 《키 리콜브》, 《독수리》, 《울지 포커스 렌즈》를 비롯한 각종 대규모전쟁 연습들도 전조선을 철저히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정책에 따른것이였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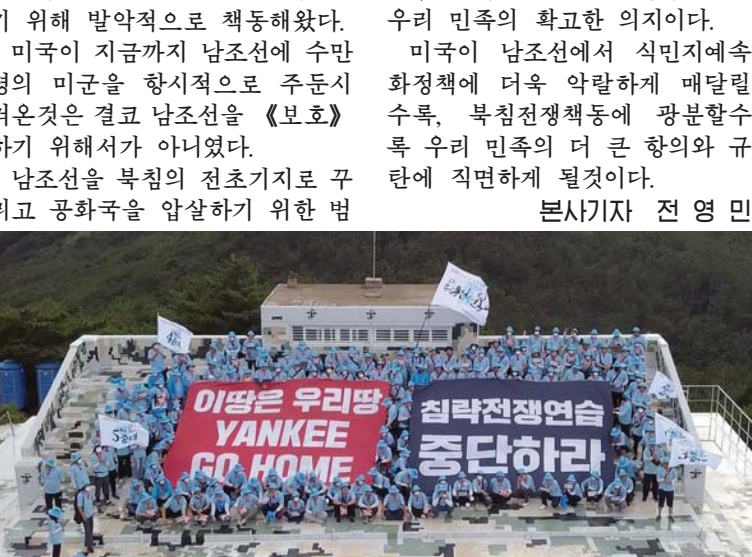
얼마전 남조선에서 벌어진 《울지 프리덤 실드》합동군사연습 역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위협천만만 북침선제공격연습이며 전 조선반도를 저들의 지배권에 넣으려는 범죄적인 침략정책의 산물이다.

실로 미국의 남조선강점사는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범죄의 력사, 죄악의 력사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을 하루빨리 끝장내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이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식민지에속화정책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릴수록,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할수록 우리 민족의 더 큰 항의와 규탄에 직면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전영민





# 민족의 우수한 전통이 꽃피는 공화국

공화국에서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2022가 온 나라 사람들의 커다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어느 종목이나 그러하지만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서 참관자들의 이목을 특별히 집중시킨 것은 바줄당기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민족체육경기종목들이었다.

에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과 추석을 비롯한 민족명절들에 마을별로 바줄당기경기기를 하곤 하였는데 그 광경이 분만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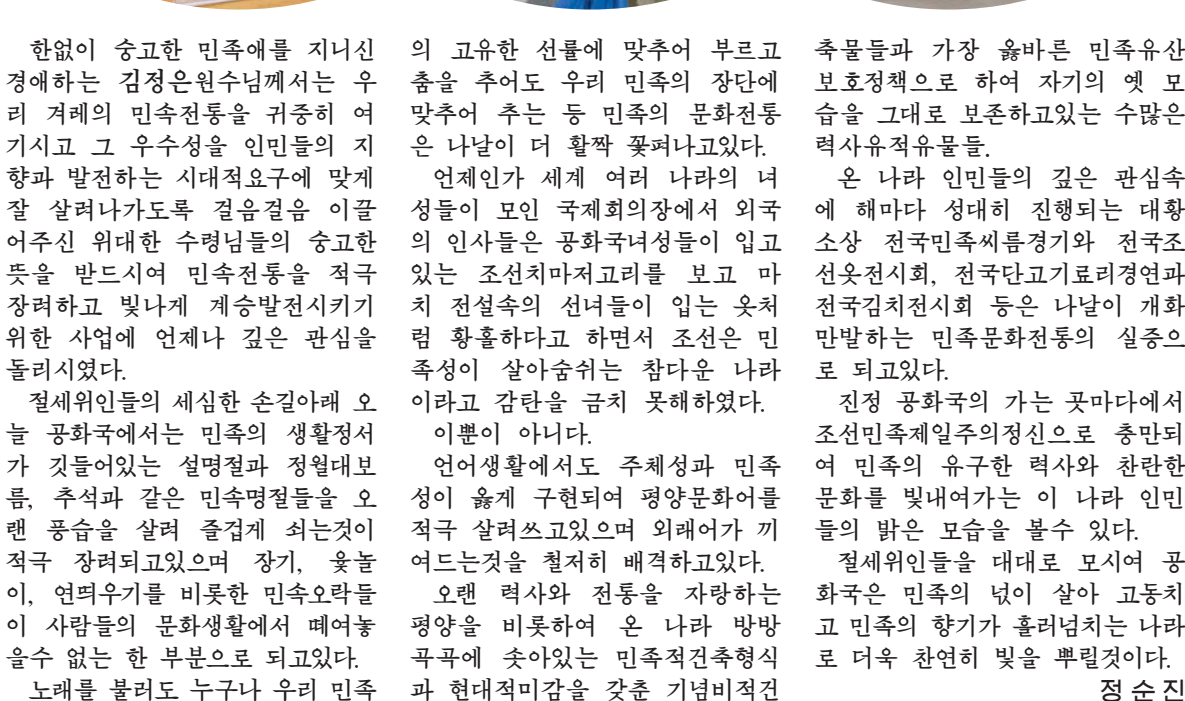
이번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서도 열기던 웅원속에 바줄당기경기에 참가한 각 도의 선수들은 높은 집단주의정신과 강한 의지, 완강한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다양한 기술로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쳐보였다.

한글수 자강도 립업관리국 부원은 이렇게 말하였다.

《바줄 바줄당기경기기를 진행하였습시다.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는데서 바줄당기경기이상 없습니다. 우리 자강도 립업관리국에서는 민족의 넘고 기상이 어린 바줄당기기와 씨름을 적극 장려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바줄당기기만이라고 하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면서 창조된 우수한 민족문화와 민족전통들은 오늘 공화국에서 나날이 활짝 꽃피고있다.

그 어딜 가나 민족의 향취가 한껏 넘쳐나고있는 공화국의 자랑찬 현실은 민족의 우수성과 우수성, 고유한 생활세계가 반영된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한없이 숭고한 민족예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겨레의 민족전통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우수성을 인민들의 지향과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잘 살려나가기로 결심하심을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서 민족전통을 적극 장려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절세위인들의 세심한 손길아래 오늘 공화국에서는 민족의 생활정서가 깃들여있는 실명절과 정월대보름, 추석과 같은 민족명절들을 오랜 풍습을 살려 즐겁게 쇠는것이 적극 장려되고있으며 장기, 옷놀이, 연뽕우기를 비롯한 민족오락들이 사람들의 문화생활에서 떼어놓을수 없는 한 부분으로 되고있다. 노래를 불러도 누구나 우리 민족

의 고유한 선물에 맞추어 부르고 춤을 추어도 우리 민족의 장단에 맞추어 추는 등 민족의 문화전통은 나날이 더 활짝 꽃피고있다. 언제나가 세계 여러 나라의 녀성들이 모인 국제회의장에서 외국 인사들은 공화국녀성들이 입고있는 조선치마저고리를 보고 마치 전설속의 선녀들이 입는 옷처럼 황홀하다고 하면서 조선은 민족성이 살아숨쉬는 참다운 나라 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언어생활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이 높게 구현되어 평양문화어를 적극 살려쓰고있으며 외래어가 끼여드는것을 철저히 배격하고있다. 오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평양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에 솟아있는 민족전통축성전과 현대적미감을 갖춘 기념비적전

축물들과 가장 옹바른 민족유산 보호정책으로 하여 자기의 옛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는 수많은 력사유적유물들. 온 나라 인민들의 깊은 관심속에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는 대항소상 전국민족씨름경기과 전국조선우전대회, 전국단고기리경연과 전국김치전시회 등은 나날이 개화만발하는 민족문화전통의 실증으로 되고있다.

진정 공화국의 가는 곳마다에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충만되어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빛내여가는 이 나라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볼수 있다. 절세위인들을 대대로 모시어 공화국은 민족의 넘고 살아 고고치고 민족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나라로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릴것이다. 정순진

## 사라져가는 민족의 문화 전통

남조선에서는 70여년 지속되어온 당국자들의 반민족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정책으로 하여 우수한 민족성과 문화전통이 여지없이 짓밟히고 사라져가고있다.

이런 《다문화사회건설》로 그 무슨 국제결혼이라는 것이 장려되어 혼혈인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양기문화와 섞여버린 부르주아생활양식이 범람하여 사람들이 이색적인 생활풍조에 심히 오염되고있다. 옷차림과 머리단장에서도 고유한 민족의 넘고 사멸되어가고있다.

민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징표의 하나인 언어도 마찬가지이다. 남조선에서는 우수한 우리 말과 글이 버림을 받고있으며 보고 듣고 이해할수 없는 외래어, 잡탕말이 범람하고있다.

기관명칭과 공문을 영어로 작성하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신문물 비롯한 출판물들은 경성이나 하듯이 영어표현과 한자표현들로 지면을 채우고있다.

남조선의 생활용어 1643개를 조사분석한데 의하면 우리 말은 불과 5%이고 95%가 외래어와 잡탕말이라고 한다. 교육분야에서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가 무시당

하고있다. 교원들이 강의할 때 외래어와 잡탕말을 쓰는것이 보통이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우리 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도 조선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모르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세계화》바람에 휘말려 예술이 잡탕문화로 전락되어가고있는것도 문제이다. 외국선물을 모방한 혼탁량의 노래가 《민요》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불려워지는가 하면 절망과 타락을 고취하고 신망을 자국하는 퇴폐적인 일보와 서방의 노래들이 《대중가요》로 퍼져가고있으며 변태적이고 기형적인 유흥으로 사람들의 정신을 유혹하는 작품들이 무대를 독점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도시현대화》, 《개발》의 명목밑에 무질서하게 버려놓은 공사장들에서 수천점의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땅속에 묻혀있는 문화재의 90%정도가 확인되지도 않은채 공사도중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한심한 현형이라고 한다.

서울의 숭례문(남대문)이 화재사고로 형체가 없어져 사라진 사실은 남조선의 문화유적보존실태가 얼마나 한심한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각종 《전시회》와 《선물》의 명목밑에 귀중한 문화재들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마구 팔리려고있고 각계의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민화유적보존실태가 얼마나 한심한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그런가 하면 각종 《전시회》와 《선물》의 명목밑에 귀중한 문화재들이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마구 팔리려고있고 각계의 우려와 비난을 자아내고있다.

미술작품들도 고유한 민족적색채의 그림은 찾아볼수가 없어 전문가들까지도 《동양화인지, 서양화인지, 추상화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혀를 찰 정도이다.

남조선에 갇힌 외국인이 《우리를 닮아도 너무 닮았다. 남의 땅에 왔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이곳의 문화예술을 보면 식민지로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조소하것은 우연하지 않다.

남조선을 이처럼 민족문화와 전통의 폐허지대, 언어식민지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다음아닌 매국과 반역을 일삼고있는 남조선의 사대매국세력이다. 남조선 각계층이 의세에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말살하고있는 집권세력의 사대매국적행동을 단죄 규탄하며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는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도굴이라는 이름의 전차, 석기밭으로 돌진하다**

### 역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 농민들을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한 내각결정

공화국에서는 하나의 로선과 정책, 하나의 결정을 채택하여도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차리에 놓는 것을 철칙으로 내세우고있다. 평남관계 2계단공사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의 중소규모관계공사와 하천공사를 전군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내각결정도 그러한 원칙에 따라 채택되었다.

주제44(1955)년 6월 어느날이었다. 이날 평남남도일대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원군의 어느 한 논밭에서 이룩한 차를 멈춰세우게 하시었다. 모내기철도 다 지났건만 논

에서는 농민들이 물동으로 물 경을 길다라 조금씩 부어주며 표창모를 심고있었다. 이곳 농민들의 모습을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 가시어 물길너머가 얼마나 먼가, 하루에 몇동이씩이나 길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러시었다 물길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머리가 다 험했는가고 하시며 걱정을 놓치지 못하시었다.

이윽고 차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의 심정은 무거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날 오전중에 평양에 돌아가셔야 하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일정을 바꾸시어 평원군에서 종산군으로, 온천군으로, 강서군(당시)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철수당들이 내려있는 그 일대의 모내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떤 곳에서는 너무 속이 상하시어 표창모 한포기를 손에 들고 차에 오르시었다. 그 표창모가 그날 저녁 내각성원들이 모인 방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들 보라고, 이것이 표창모라고, 동무들도 쌀을 먹고 나도 쌀을 먹는다고, 이 쌀을 농민들이 험하게 생산해야 그것을 먹는 사람의 마음도 편할게 아니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새겨안고 내각성원들은 자책감을 금치 못하였다. 얼마후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뜨겁게 울린 내각결정이 채택되었다.

결정에는 평남관계 2계단공사를 벌리며 그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수백개소의 중소규모관계공사와 하천공사를 전군중적으로 벌릴데 대한 문제가 명시되어있었다. 험하게 물을 길어다 표창모를 심는 농민들의 정상을 목격하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도 가슴아파하시던 그날의 사연을 담고있는 내각결정이었다. 본사기자

크나큰 사람이 담겨진 하나 하나의 창조물들을 그저 작은 모래알이라 하고만 하시었다. 우리 다 알고있었다. 그 한알한알 모래알에 비긴 그이의 천만고생과 고고로! 깊은 밤, 이른새벽에, 무더운 삼복철과 강추위속에 찾으신 건설장들은 그 얼마이며 그 길에서 맞으신 눈과 비, 밤새워 보아주신 문건은 그 얼마인지... 그이께서 보아주신 령명거리형성안만 해도 1390여건, 송화거리형성안은 1200여건, 양덕은천문화휴양지형성안은 무려 2000여건이나 지도해주시었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렇듯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신심을 다 바쳐 사랑과 정을 기울이고계신다. 그러시고도 그 사랑이 적으신민 인민들에게 최상의 문명, 반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는 원수님이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올 줄을 안으시고 위민현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같은 진정어려우신 《모래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가셔진다고, 이렇게 인민들에게 안겨준 재부를 한가지, 한가지 마련해놓을 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시었다.

### 수필 모래알

그날 종합봉사선을 돌아보시며 너무도 기쁘시어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지만 이것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해주실은 모든 일에 비하면 한알의 작은 모래알이라고, 이런 작은 한알한알의 모래알을 쌓아서 큰 산을 이루어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는것이였다. 모래알! 한알한알의 모래알을 쌓아서 큰 산을!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인민을 위해 거창한 대건설을 발기하시고 인민이 바라고 꿈

꾸어온 소원을 다 풀어주시면서라도 그 하나하나를 작은 모래알도 여기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디.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그이의 열화같은 인민사랑에 의해 이 땅에는 인민을 위한 황홀한 창조물들이 얼마나 많이 일떠섰는가.

특색있는 중앙동물원과 자연박물관, 문수지구의 물놀이장과 마시령스키장, 양덕은천문화휴양지이며 인민의 웃음소리 높은 미림승마구락부, 산간문화도시의 본보기로 천지개벽된 삼지연시, 인민의 리상거리인 미래과학자거리, 령명거리, 송화거리, 보통강강안다락시주택구... 정녕 인민을 위해 하시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고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하늘의 높이에도 비길수 없는 그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하시신 모래알에 대한 말씀에는 그 끝이 없는 인민사랑의 무한대한 세계가 비껴있고 인민들이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내 조국의 밝은 미래가, 공화국인민만이 누리는 크나큰 행복의 무게가 실려있는것이였다. 유현의

### 함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새가정

## 편지를 통해 오가는 뜨거운 성

공화국의 평양교원대학에 《편지소년》로 널리 알려진 한 대학생청년이 있다. 그의 이름은 신성경. 그는 어려서부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한마음을 다 바쳐가고있는 공로자와 로력혁신자들, 청년동력대원들, 다수확농장원들에게 고무와 격려의 마음을 담은 소박한 편지들을 수많은 보내었다. 소년단시절부터 그가 쓴 편지는 무려 3200여통에 달한다.

가 창작한 노래도 불러주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도 넘겨주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한 로력적 위훈을 펼쳐가는 아버지, 어머니들과 오빠, 언니들에게 메일과 같이 편지를 쓰고 노래도 지어 보내주었다. 그의 편지는 단순히 종이 장우의 글줄로만 씌여진것이 아니었다. 그는 2.8적동청년단원 김유봉청년동력대원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여러 초소들에 나아온 명예대원으로 등록되었다. 이 나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펼쳐처럼, 조카처럼, 친동생처럼 소중히 간직되었다. 그러던 신성경이 12살 나던 해에 난치의 질병에 걸릴줄 어찌 알았으랴. 신성경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신체를 퍼먹히는 병마로 통을 겪을 때, 부모들도 손맥을 놓고있을 때 그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고 지켜준것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입원치료가기간 신성경은 자기의 병치료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친선축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는줄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의 입원실로는 메일과 같이 전국 지방방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편지와 보약, 약초들을 보내어 왔다. 《신성경아, 힘을 내거라. 우

로 달랐지만 신성경은 편지의 글줄마다에서 흐르는 고마움과 뜨거운 친혈육의 정을 느낄수 있었다. 진정 그 들모두는 친부모였고 친혈육들이었다.

이렇듯 고마운 사람들의 지극한 사랑과 정에 떠받들려 그는 다시 일어설수 있었고 오늘은 어엿한 대학생으로 성장하였다. 오늘도 신성경은 공로자, 애국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의 편지를 받아본 사람들은 편지를 보내온다.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아래 덕과정이 공기처럼 흐르고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의 참모습이 서로 오고가는 편지들마다에 뜨겁게 어려있다. 본사기자 김진혁

가 창작한 노래도 불러주고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도 넘겨주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한 로력적 위훈을 펼쳐가는 아버지, 어머니들과 오빠, 언니들에게 메일과 같이 편지를 쓰고 노래도 지어 보내주었다. 그의 편지는 단순히 종이 장우의 글줄로만 씌여진것이 아니었다. 그는 2.8적동청년단원 김유봉청년동력대원을 비롯한 어렵고 힘든 여러 초소들에 나아온 명예대원으로 등록되었다. 이 나날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펼쳐처럼, 조카처럼, 친동생처럼 소중히 간직되었다. 그러던 신성경이 12살 나던 해에 난치의 질병에 걸릴줄 어찌 알았으랴. 신성경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신체를 퍼먹히는 병마로 통을 겪을 때, 부모들도 손맥을 놓고있을 때 그의 웃음을 다시 찾아주고 지켜준것은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입원치료가기간 신성경은 자기의 병치료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친선축의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는줄을 미처 알지 못했다. 그의 입원실로는 메일과 같이 전국 지방방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편지와 보약, 약초들을 보내어 왔다. 《신성경아, 힘을 내거라. 우

### 독자문답

#### 재동동로 김남수선생이 제기한 질문

##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체계의 생활력이 어떻게 나타나고있는가

공화국에서 원격교육체계의 생활력이 나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수천개의 공장, 기업소가 건설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평성성리관공업대학, 계룡상사리원동대학을 비롯한 수십개 대학의 원격교육체계가 망라되었다. 수습계 학과에 불과하던 나라의 원격교육은 오늘 수백개의 학과를 가진 교육체제로 확대강화되었다.

전국적인 사회과학부문 원격교육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는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교육강령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작성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해나가고있다. 우리 식의 원격지능수관리체계를 개발하여 나라의 원격교육의 정비보완현에 이바지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그리고 평양기계대학, 평양의학대학, 원산공업대학 등에서는 해당 대학들과 학술적련계를 맺고 원격학술일화

체계운영을 정상화해나가고 있다. 교육과 생산실천을 밀착시킨 우리 식의 원격교육을 받은 사람들속에서 생산활성화와 실비현태에 이바지하는 기술혁신안을 50여건이나 창안도입한 락량영예군인수직일용품공장의 영예군인기술자, 인쇄물의 정밀 높이는 여러건의 발명, 창고고안용성공시킨 평양종합인쇄공장의 작업반장을 비롯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다. 공화국에서는 고급중학교

를 졸업한 대상은 물론 현재 고등교육을 받고있거나 고등교육을 받고 현지에서 일하는 대상을 비롯하여 나이나 로동 연령, 직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희망하는 대학의 원격교육을 받을수 있다. 나라의 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동하며 근로자들을 지식형근로자로 키우는 데서 큰 역할을 하는 원격교육체계에 열광하는 단원위 학생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본사기자



《무지개》호



# 호전광들의 해괴한 자화자찬

요즘 남조선의 윤석열역적패당이 《실전적인 전구급전쟁연습》이 정상시행되었다는니, 법 《정부》급의 《총력전》 수행능력이 제고되었다는니, 《위기관리능력》을 한층 높이고 《한》미련합방위태세,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느니 하며 미국과 약하며 강행한 《을지프리덤 실드》 합동군사연습의 《성과》에 대해 떠들고있다.

미국에 명줄을 걸고있는 가련한 친미주, 전쟁하수인의 자취위안이고 내부

의 안보불안을 잠식시켜버리는 허세성광고놀음이 아닐수 없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도 그에 대해 잘 알수 있다.

이번 합동군사연습기간 윤석열역적패당과 미국것들사이의 불협화음이 《동맹》의 간판위에서 울려나와 역적패당을 당황망조케 하였다.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미련합군에 대한 《총괄지휘》이니, 전사작전통제권반환원정의 《진일보》니 하고 떠들어대지만 남조선장점 미군사령관은 전사작전통제권

반환훈련을 하는 과정에 저들의 주구에 불과한 남조선군부의 지휘를 받는다는것이 몹시도 언짢아 자기 책상우에 놓인 《미래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이라는 명패를 집어던지면서 윤석열것들을 로골적으로 하대하였다고 한다.

또한 남조선장점 미군이 합동군사연습과정에서 남조선군부것들과의 각종 정보공유 등에서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자랑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역적패당이 《한》미련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강화를 떠들고있으니 그야말로 아연실색할 추태가 아닐수 없다.

이번에 윤석열역적패당이 합동군사연습기간 항시적인 불안에 시달린것도 주목할만한 것이다.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부장관들은 저들의 망동이 초래할 후과가 두려워 국도

## 한숨소리, 비명소리

얼마전 하와이에 있는 인디아태평양지역 미군총사령부에서는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안보수장들이 참가한 협의회라는 것이 벌어졌다고 한다.

거기에서 큰 의외였다는것이 공화국에 대한 남조선, 미국, 일본의 《3자공조와 관련한 생산적협약》, 남조선미국의 고위급확장억제전략협의체재개와 그것을 위한 미국의 신속한 대응 등이다.

조선반도를 포함한 인디아태평양지역의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행위자들의 헛된 망상, 가스론인 작태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공화국의 군사적강세가 예상밖으로 비약적이라는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반적 정세가 바뀔것이라는 너무도 상반되게 울려가는데 불안과 공포를 금치 못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커다란 위구심이 이번 모의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이번과 같은 불순한 모의관이나 벌려놓는다고, 그 무슨 《대책》이라는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여 형세가

달라질것은 없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북북미》를 떠돌던 지난 세기 90년대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공화국은 붕괴되기는 고사하고 승승장구해왔다.

미국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모지름을 써서 공화국은 이미 존엄높고 강대한 핵보유국으로 공인되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가해오던 시대는 영원히 끝났고 반공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야망은 한갓 여름날의 개꿈으로 되고 말았다.

이것이 현실인데도 아직까지 세상이 달라진것도 모르고 《북핵문제에 대한 생산적협약》이니, 《확장억제력대화》니 하는 잡교대같은 소리를 췌치며 공화국의 국위고국제이며 절대적합인 핵을 어찌보고 하는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행위자들의 헛된 망상, 가스론인 작태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공화국의 군사적강세가 예상밖으로 비약적이라는 인디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반적 정세가 바뀔것이라는 너무도 상반되게 울려가는데 불안과 공포를 금치 못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의 커다란 위구심이 이번 모의관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이번과 같은 불순한 모의관이나 벌려놓는다고, 그 무슨 《대책》이라는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여 형세가

### 만화 《성과》 발표회



오리무중이라는 성구가 있습니다.

사방 5리나 되는 안개속에 묻혔다는 뜻으로 일의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수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이 오리무중이 아닌가싶습니다.

역적패당이라는게 이 꼴이니 민생을 논해야 할 《국회》라는게 또 《식물국회》가 되는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양도 개도 다 같이 웃을 일》, 《풍가루집안》, 《당은 자중지란》, 윤석열은 고민상태라는 민심의 아우조소가 넘치는것은 응당합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것인데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육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전》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라는 최악의 위기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고로 사람들은 생활고생, 물고생, 마음고생에 시달려 《이렇게 힘든적은 없었》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아라》고 아우성이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담은 현대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오년무중》

어쩔수 없다.

얼마전에 민생안정대책을 세우다면서 내놓은 《교육정책》이라는것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인상입니다.

민민들의 피를 짜내서는 다시 마시라고 주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3무정전》이라는 비난도 약과일따름입니다.

《양도 개도 다 같이 웃을 일》, 《풍가루집안》, 《당은 자중지란》, 윤석열은 고민상태라는 민심의 아우조소가 넘치는것은 응당합니다.

이런것이 《공정과 상식》은 아닐것인데 그래서 윤석열역적패당이 먹는 육이 불공정, 불통, 불안의 《3불정전》입니다.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3고》와 《저생산, 저소비, 저투자》의 《3저》라는 최악의 위기상태입니다.

극심한 민생고로 사람들은 생활고생, 물고생, 마음고생에 시달려 《이렇게 힘든적은 없었》다. 《말로만 민생을 떠들지 말고 밥상물가부터 잡아라》고 아우성이지만 윤석열역적패당의 대담은 현대 얼마전 남조선법원이 리준석을 당대표자리에서 내쫓고 만든

은 싹씩, 허리는 굽석굽석입니다.

그 무슨 《국외외교》, 《실용외교》를 한담시고 돌아치지만 주변국들로부터 맹대와 따돌림을 당하는 《사면초가》신세가 되었습니다.

북남관계는 완전 박살입니다.

세계전례에 당당히 서있는 핵강국을 향해 《주적》이니, 《신제라격》이니 불경스러운 망발만 주절대사으로 규정할 공화국이 있고 좌우를 보아도 한편에는 미국의 하수인노릇을 하는 역도를 혼쭐내겠다고 주변국들이, 다른편에는 여우같은 섬나라것들이 재침의 이발을 갈며 노리고있습니다.

뒤로는 망망대해, 흑시 그 바다를 건너 상선의 풍을 찾아가면 살길이 있겠는지.

천리길도 첫걸음으로 시작하고 시작을 알면 끝을 알수 있다던데 벌써부터 갈길을 몰라 비틀거리는 윤석열역적패당입니다.

예로부터 원망이 응어리지면 한이 되고 원한이 넘치면 저주로 내린다던데 윤석열역적패당이 민생의 요구와 지향을 외면하고 한사코 도전한다면 지금의 오리무중이 집권 내내 이어지게 될것입니다.

아마 그런걸 보고 《오년무중》이라고 해야 하겠지요.

김정혁

## 감출수 없는 친일시대매국노의 본색

윤석열역적패당이 친일매국노적본색을 더욱 날날이 드러내고있다.

최근 일본것들이 오는 11월 해상 《자위대》 창설 70년을 계기로 《육일기》를 빼앗아 내걸고 진행하는 국제관함식에 남조선해군이 참가할것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는 가운데 역적패당이 이를 《한》일관계개선의 돌도 없는 기회로 여기면서 참가해보려고 교묘하게 날아대고있는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지금 역적패당은 일본해상 《자위대》가 오래전부터 《육일기》를 계양하고있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는니, 관계개선이 우선이라느니 하면서 일본이 벌리는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데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는 용납 못할 친일매국노행위가 아닐수 없다.

일본해상 《자위대》의 《육일기》가 《일장기》와 함께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할 때마다 내흔들었던 전

과 손을 잡는것도 서슴지 않는 친화적의 무리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2018년에 진행된 남조선해군의 관함식에 참가하게 되어있던 일 본해상 《자위대》의 군함들이 《육일기》를 내리라고 요구하자 참가를 거부하고 돌아간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도발적인 국제관함식에 남조선이 참가하는것을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우주성

역스럽기 그지없구나  
기신기신 대구의 시장 찾아  
선웃음 지으며 너스레를 떨어낸 윤석열  
민생 돌보겠다 제법 흰소리쳤으니

하루전에 찾았던 강동구시장에선  
《비상경제민생회》판도 벌려놓았지  
자기의 존재리유  
그것은 민생이라 노족도 떨었더라

꿈지에 불이 달렸구나  
민생이 어떻게 되든 권력유지에만 매달려  
경찰청으로 《정적》을 보복하고  
등아리청으로 생색이나 내더니

바쁘긴 바빠났구나  
갈수록 더해만가는 민생고

윤석열역적패당이 거제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친일시대매국노행위에 매달릴수록 민심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받고 종당에는 과멸의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지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윤석열역적패당과 같은 만고역적들에게 차려질것이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뿐이다.



## 민심의 물을 열지 못한다

김영일

어디서나 욕속 민심의 불만 치솟으니  
몇달도 되지 않아 권력이 흔들흔들

민생에 관심이 있는듯  
희실수실 잘도 위어대는 역도  
소상공인들이 기본이라고  
엄지손가락 빼어대니  
《배우》의 솜씨로서는 나무라테 없구나

역도의 회떠운 말따마나  
민심이 모이고 민심이 흐르는 시장들에

살려달라 목더지게 아우성치며  
절망의 물을 삼킬 때  
역도의 패자들은 만찬장에서  
쾌락의 술을 들이키고있었나니

한순간의 제 안락보다 못하더냐  
한잔 술값보다 못하더냐  
민중의 생명이  
그러고도 여기저기 싸다니며  
민생이 어쩌구 말방아를 찢고다니는 추태  
두번 속을 정도로 민심은 어리석지 않다

이미 등돌린 민심  
등돌린 민심은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  
서울이든 대구든 어디든 꼭대만 배우처럼  
아무리 싸다니며 서툰 연기 해보아라  
윤석열, 민심은 이미 물을 단았다